

[ebs부교재] 주몽신화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산(三危太白山)을 내려다보매,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어, 내려가서 세상을 다르리게 하였다. (중략) 그는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의 삼백예순가지나 되는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시켰다.

(나) “나는 하백(河伯)의 딸로 이름은 유화(柳化)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다가 하느님의 아들인 해모수(解慕漱)를 만나 웅신산(熊神山) 밑 압록(鴨綠)가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는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부모가 중매 없이 남을 따라간 것을 책망하여 여기에 귀양을 보낸 것이다.”라고 하였다.

금와가 이상히 여겨 유화를 집에 두었더니, 햇빛이 비치 몸을 피해도 쫓아가며 비추었다. 이로 해서 잉태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 들이나 되었다.

(다) 태자는 말하였다.

“지난번 황룡국 왕이 강한 활을 보냈을 때, 나는 그것이 우리나라를 가볍게 본 것이 아닌가 하여 활을 당겨 부러뜨려서 보복한 것인데, 뜻밖에 부왕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다. 지금 부왕께서는 불효하다고 하여 칼을 주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니 아버지의 명령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마침내 여진(礪津)의 동쪽 벌판으로 가서 창을 땅에 꽂고 말을 타고 달려 쫓려 죽었다. 그 때 나이가 21세였다. 태자의 예로써 동쪽들(凍原)에 장사 지내고 사당을 세우고 그 곳을 불러 창원(槍原)이라고 하였다.

(라) 토끼는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아아 그런가, 나는 신명(神明)의 후예로서 능히 오장(五臟)을 씻어 가지고 이를 다시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요사이 마침 마음에 근심스러운 일이 생겨서 간을 꺼내어 깨끗하게 씻어서 잠시 동안 바윗돌 밑에 두었는데, 너의 좋다는 말만 듣고 오느라고 그만 간을 그대로 두고 왔다. 내 간은 아직 그 곳에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간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나는 비록 간이 없어도 살 수가 있으니, 그러면 어찌 둘이 다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니, 거북이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도로 육지로 올라왔다.

토끼는 풀숲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거북에게 말하기를,

“거북아, 너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어찌 간이 없이 사는 놈이 있겠느냐? 하니, 거북이는 멧쩍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1. () 글 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우리 민족의 생성과 건국에 신성성을 더해 준다.
- ② 환인, 환웅, 단군의 삼대기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 ③ 천신과 수신의 결합에 의한 시조 탄생을 설명하고 있다.
- ④ 홍익 인간이라는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드러나고 있다.
- ⑤ 농경 생활에 주술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2. (가), (다), (라)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가)	(다)	(라)
①	전승자의 태도	신성성 중시	진실성 중시	흥미와 교훈 중시
②	시간 및 장소	태초의 시간 신성한 장소	구체적 시간 구체적 장소	서사적 과거 불특정 장소
③	결말	승고함	비극적	낙천적
④	전승 범위	민족적	지역적	범세계적
⑤	대상 관계	자아=세계	자아>세계	자아<세계

3. (라)에서 거북에 대한 토끼의 행동을 적절하게 지적한 것은?

- 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 ② 터진 방앗공이에 보리알 끼듯 하고 있군.
- ③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법이지.
- ④ 등겨 먹던 개는 들키고 쌀겨 먹던 개는 안 들킨다더니.
- ⑤ 자에도 모자랄 적이 있고 치에도 넉넉할 적이 있는 법이지.

4. (가)와 (나)는 모두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이다. 다음의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가)에서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을 밝힌 부분을 찾아 한 문장으로 쓰시오.

- ④ (가)에 비해 (나)가 갖는 뚜렷한 차이점을, ‘(나)는 (가)에 비해 ~있다’의 형식으로 서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40자 이내의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왼편 겨드랑이로 한 ㉠알을 낳았는데 크기가 닛되[五升] 들이쥌 되었다. 왕[금와왕]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말하되,

“사람이 새알을 낳은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

하고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마목(馬牧)에 버렸으나 여러 말들이 밟지 않았고, 깊은 산에 버렸으나, 백수(百獸)가 모두 보호했다. 구름이 낀 날에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일광(日光)이 있으므로 왕은 알을 가져다가 그 어미에게 보내고 기르도록 했다.

㉢알은 마침내 열리고 한 사내아이를 얻었는데 낳은 지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하였다. (주몽은) 어머니에게 여러 파리들이 눈을 물어 잠을 잘 수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의 어머니가 갈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자 이것으로 방거(紡車) 위에 파리를 쏘아서 화살이 날면 모두 맞았다. 부여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였다.

나이가 장대해지자 재능도 겸비하였다. 금와왕에게 아들 일곱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같이 사냥하였다. 왕자 및 종자 사십여 인은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으나 주몽은 사슴을 쏘아 잡은 것이 아주 많았다. 왕자가 이를 질투해서 주몽을 잡아 나무에 매어 놓고 사슴을 빼앗아 가 버렸는데 주몽은 나무를 뽑아서 돌아왔다. 태자(太子)인 대소(帶素)가 왕에게 말하되,

“주몽은 신용(神勇)이 있는 사람이고 눈길이 남다르니,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뒷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 뜻을 시험코자 하였다. 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 말하되,

“나는 천제의 손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을 먹이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남쪽 땅으로 가서 국가를 세우고자 하나 어머니가 계시기로 감히 마음대로 못합니다.”

(나) 원래 양반이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글만 읽으면 선비라 하고,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대부(大夫)가 되며, 덕이 있으면 군자(君子)가 된다. 무관은 서쪽 반에 서고, 문관은 동쪽 반에 서는 까닭에 이를 양반이라 한다.

이 중에서 마음대로 고르되, 비루한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 옛 사람을 본받아 그 뜻을 숭상해야만 한다.

새벽 네 시만 되면, 일어나서 촛불을 켜고, 눈은 콧날 끝을 슬며시 내려다보며, 무릎을 꿇고 마치 얼음 위에 표주박을 굴리듯이 동래박의(東萊博議)를 내리 외어야만 한다. 배

고과도 참고, 추위도 이겨 내야 하며, 가난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 이를 마주 부딪치면서 주먹으로 뒤통수를 두드리고, 작은 기침에 입맛을 다시며, 소맷자락으로 쓸면서 관을 반듯이 쓴다. <중략> 손에 돈을 쥐는 법이 없고, 쌀값을 묻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며, 밥을 먹을 때에도 의관 없는 맨머리로 하지 말아야 한다. 먹는데 있어서도 국물을 먼저 마시지 말며, 물을 마실 때에도 넘어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고, 수저를 놀릴 때에도 소리를 내지 말며, 생과는 먹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아내를 때리지 말아야 하고, 화가 나도 그릇을 깨지 말아야 하며, 주먹으로 아이들을 때리지 말아야 한다. 종을 꾸짖을 때도 ‘죽일 놈’이라고 하지 말며, 소나 말을 나무랄 때에도 먹이던 주인은 욕하지 말아야 한다. 병(病)이 나도 무당을 부리지 말며, 제사 때에는 중을 불러다 재(齋)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화로에 손을 쪼이지 말며, 말할 때에 침이 튀지 않게 하며, 소를 잡지 말고, 돈놀이도 하지 않는 법이다.

무릇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행실이 양반과 틀림이 있을 때에는 이 증서를 가지고 관가에 가서 재판을 할지이다.

이렇게 증서에다 글을 쓴 다음 성주(城主)인 정선 군수가 수결(手決)을 하고, 좌수(座首)와 별감(別監)도 모두 서명을 했다.

이것이 끝나자 통인(通引)을 시켜 도장을 찍는데, 그 소리는 엄고(嚴鼓) 치는 소리와 같았고, 찍어 놓은 모양은 별들을 벌여 놓은 것 같았다. 호장(戶長)이 다 읽고 나자, 부자는 한참 동안 슬픈 표정으로 있다가 말했다.

“양반이 오직 이것뿐이란 말이요? 제가 듣기에는 양반은 신선과 같다고 하여 많은 곡식을 주고 샀는데, 너무도 억울합니다. 좀더 이롭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서를 다시 고쳐 쓰기로 했다.

하늘이 백성을 냄에 있어, 그 백성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백성 중에서 가장 귀한 자는 선비인데 이를 양반이라 하며, 모든 점에 이로운 것이 많다. 농사나 장사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조금만 공부하면 크게는 문과에 오르고, 작아도 진사는 할 수 있다. 문과의 홍패(紅牌)라는 것은 두 자밖에 안 되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돈자루나 다름이 없다. 진사는 나이 삼십에 첫 벼슬을 해도 이름 높은 음관(蔭官)이 될 수 있고, 세력 있는 남인에게 잘 보인다면, 귀밀머리는 일산(日傘) 밑 바람으로 희어지고, 배는 종놈의 대답 소리에 저절로 불러진다. 방에는 노리개로 기생이나 두고, 마당에는 곡식 되는 소리가 학(鶴) 우는 소리 같다.

궁한 선비가 되어서 시골에 가 살아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 이웃집에 소가 있으면 내 논밭을 먼저 갈게 하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내 밭에 김을 먼저 매게 하는데,

어느 놈이든지 감히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코에 잣물을 들이 붓고 상투를 붙들어 매고 수염을 낚아채더라도 그 누구도 감히 원망할 수 없는 것이다.

부자는 증서를 중지시키고 혀를 내두르며,

“그만두시오. 그만두어. 맹랑하구먼. 장차 나를 도적놈으로 만들 셈이란 말이오?”

5. () 글은 우리나라 문화 설화 중 문학성이 높은 작품이라고 한다. 그 이유를 소재에 대한 해석을 통해 밝히 고자 할 때, 적절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a알 : 원형(圓形), 태양이나 세계 상징
- ② b일광 : 하늘과의 연관성 지속, 하늘의 정기를 받음
- ③ c알은 ~ 열리고 : 새로운 국가 건설, 세계 질서의 창조 암시
- ④ d활과 화살 : 태양을 통제하는 존재, 즉 제왕의 상징이다.
- ⑤ e알 : 하늘의 보살핌, 천우신조(天佑神助)를 보여줌

6. (나)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연암은 <양반전>을 통해 계급타파, 봉건 체제의 와해를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 ② 앞문서는, 지식과 신분을 앞세워 특권을 독점하는 양반들을 폭로한다.
- ③ 뒷문서의 양반은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면서 먹을 것도 못 챙기는 무능한 양반이다.
- ④ 부자는 조선 후기 사회의 새로운 인간형으로 속물적인 모습과 양심적인 모습의 양면을 보여준다.
- ⑤ 선비도를 상실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양반들을 가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7. (나) 소설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당대의 (1)시대 상황과 이와 관련한 (2)작자의 창작 의도를 서술하고, (3)이를 위해 작가가 사용한 표현기법을 서술하시오.

[ebs부교재] 조신설화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옛날 신라(新羅)가 서울이었을 때 세규사(世遶寺)—지금의 흥교사(興敎寺)—의 장원(莊園)이 명주(溟洲) 날리군(捺李郡)—지리지(地理志)를 상고해 보면, 명주에는 날리군(捺李郡)이 없고 오직 날성군(捺城郡)이 있을 뿐이다.

<중략> -이 있었는데, 본사(本寺)에서 중 조신(調信)을 보내서 장원(莊園)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조신이 장원에 와서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좋아하고 아주 반했다.

여러 번 낙산사(洛山寺) 관음보살(觀音菩薩)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 이로부터 몇 해 동안에 그 여인에게에는 이미 배필이 생겼다. 그는 또 불당(佛堂)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다.

꿈 속에 갑자기 김씨 낭자(娘子)가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뵈고 알게 되어 마음 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 억지로 판 사람에게로 시집갔습니다. 지금 내외(內外)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와 사십여 년 간 같이 살면서 자녀 다섯을 두었다. 집은 다만 네 벽뿐이고, 좋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해 갈수가 없었고, 마침내 풀이 말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다. 이렇게 십 년 동안 초야(草野)로 두루 다니니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도 가릴 수가 없었다.

<중략>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웃도 깨끗했었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어, 집을 나온 지 오십 년 동안에 정(情)은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엮혔으니 가위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욱 닥쳐오는데 남의 집 결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수많은 문전(門前)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울에 사랑에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 있었습니까?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위의 이슬이요, 지초(芝草)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입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누(累)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

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못 새가 다 함께 굶어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조(鸛鳥)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하는 것은 인정(人情)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人力)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말을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 여인이,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릿털은 모두 희어졌고 망연(茫然)히 세상 일에 뜻이 없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像)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그는 돌아와서 해현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石彌勒)이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재(私財)를 내서 ㉤정토사(淨土寺)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다.

(나)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 울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늘 시비(是非)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狂奔疊石吼重巒 / 人語難分咫尺間 / 常恐是非聲到耳
/ 故教流水盡籠山

(다) 비 갠 긴 언덕에는 풀잎이 푸르네,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 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雨歇長堤草色多 / 送君南浦動悲歌 / 大洞江水何時盡 / 別淚年年添綠波

8.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의 작중인물과 (다)의 화자가 사랑하는 이와 이별에 대응하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어.

② (가)에는 인생은 고통(苦)이라는 불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있음을 알 수 있어.

- ③ (나), (다)는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창작된 작품이겠구나.
- ④ (나)와 (다)의 시적 화자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야.
- ⑤ (다)는 이별의 슬픔을 도치법과 과장법을 활용해 표현하였구나.

9. ()의 ㉠~㉥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조신에게 세속적 욕망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 ② ㉡ : 세속적 욕망이 부질없음을 의미한다.
- ③ ㉢ : 불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 ④ ㉣ : 부귀영화를 누린 뒤 각몽하는 부분이다.
- ⑤ ㉤ : 구체적인 증거물로서 전설 갈래의 특징이 된다.

10. (가)에서 <보기>의 ㉡에 해당하는 소재를 찾아 쓰시오.

<보기>

전설은 어떤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환몽구조의 전설은 꿈과 현실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꿈과 현실의 매개체가 등장하기도 한다.

11. <보기>의 ㉠~㉥을 바탕으로 (가)를 분석했을 때 적절한 것 두 가지를 고르시오.

<보기>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매일 접하는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고 중간과 끝이 있다. 아무런 맥락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는 없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이야기가 소통되는 맥락의 한 부분에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즉 이야기를 하는 활동은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주제, ㉢이야기되는 상황, 이야기 그 자체의 내용,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주제 등이 함께 이루어 내는 의사 소통 행위이며, 그것은 ㉤다른 이야기와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

- ① ㉠ - 액자식 구성으로 시작과 끝은 꿈으로, 중간은 현실로 전개되고 있어.
- ② ㉡ - 이 작품은 구비문학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주체는 정토사를 건설한 개인일 것이야.
- ③ ㉢ - 어떤 사물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작품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 ④ ㉣ - 사대부 등의 상류계층이 받아들여서 전해져 내려왔으리라 짐작할 수 있어.
- ⑤ ㉤ - 형식으로 미루어 보아 각몽 이후에 깨달음을 얻는 몽자류(夢字類) 소설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야.

12. <보기>의 시를 (나)로 고쳐 썼다고 가정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천천 바위 사이에 물이 빠르게 흐르니
그 소리가 봉우리를 울릴 만큼 크구나.
늘 보이는 인간세상의 시비의 광경이 싫어
물이 산을 둘러싸고 흐르는 곳으로 떠나왔네.

- ① 고쳐 썼다고는 하지만 주제의식이나 시적 화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
- ② 2행에서는 물소리의 크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을 고쳐서 말소리와 대조를 이루도록 표현하고 있어.
- ③ 3행에서는 시각적 심상을 청각적 심상으로 고쳐 썼어.
- ④ 4행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묘사하도록 고쳐 씀으로써 자연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드러내고 있어.
- ⑤ <보기>와 (나) 모두 자연의 경치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전개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본사(本寺)의 중 조신이 장원에 와서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좋아하고 아주 반했다. ㉠ 여러 번 낙산사(落山寺) 관음보살(觀音菩薩)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 이로부터 몇 해 동안에 그 여인에게는 이미 배필이 생겼다. 그는 또 불당(佛堂)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다.

(나) 꿈속에 갑자기 김씨 낭자(娘子)가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뵈고 알게 되어 마음 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 억지로 딴 사람에게로 시집갔었습니다. 지금 내외(內外)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다) 그녀와 사십여 년 간 같이 살면서 자녀 다섯을 두었다. ㉡ 집은 다만 네 벽뿐이고, 줄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해 갈 수가 없었고, 마침내 꼴이 말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다. 이렇게 십 년 동안 초야(草野)로 두루 다니니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도 가릴 수가 없었다. 마침 명주(溟洲) 해현령을 지날 때 십오 세 되는 큰아이가

끓어 죽어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다.

(라)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웃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어, 집을 나온 지 오십년 동안에 정(情)은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얹혔으니 가위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식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욱 닥쳐오는데 남의 집 결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수많은 문전(門前)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 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울에 사랑에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중략)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 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중략)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하는 것은 인정(人情)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人力)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말을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 여인이,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 꿈에서 깨었다.

(마)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고 망연(惘然)히 세상일에 뜻이 없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그는 돌아와서 해현에 묻은 아이를 파 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石彌勒]이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재(私財)를 내서 정토사(淨土寺)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다.

13.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으로 보아 세속적 욕망을 끊는 일이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 ② 주인공은 신분에 어긋나는 욕심을 부려 ㉢과 같은 벌을 받는다.
- ③ 주인공이 ㉠처럼 반응한 이유는 그만큼 삶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 ④ ㉡은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의도적 장치이다.
- ⑤ ㉢과 같이 결말이 처리된 이유는, 그 이후의 삶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14. (가) ~ (마)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타난 단락은?

<보기>

전설(傳說)은 어떤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이 현실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 ① (가) ② (나) ③ (다)
- ④ (라) ⑤ (마)

15. 다음 글의 주인공이 꿈꾸기 전과 후에 보인 생각의 변화를 서술하십시오. (총 글자 수는 70자 이내이며 띄어쓰기는 글자수에 포함하지 않음, 완결된 문장 형식으로 서술할 것)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옛날 신라(新羅)가 서울이었을 때 세규사(世達寺)의 장원(莊園)이 명주(溟洲) 날리군(捺李郡)에 있었는데, 본사(本寺)에서 중 조신(調信)을 보내서 장원(莊園)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조신이 장원에 와서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좋아하고 아주 반했다. 여러 번 낙산사(洛山寺) 관음보살(觀音菩薩)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 이로부터 몇 해 동안에 그 여인에게 이미 배필이 생겼다. 그는 도 불당(佛堂)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다.

(나) 꿈속에 갑자기 김 씨 낭자(娘子)가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뵈고 알게 되어 마음 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 억지로 딴 사람에게로 시집갔었습니다. 지금 내외(內外)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와 사십여 년 간 같이 살면서 자녀 다섯을 드었다. 집은 다만 네 벽뿐이고, 좋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해 갈 수가 없었고, 마침내 풀이 말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다. 이렇게 십 년 동안 초야(草野)로 두루 다니니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도 가릴 수가 없었다. 마침 명주(溟洲) 해현령(蟹懸嶺)을 지날 때 셴오 세 되는 큰 아이가 갑자기 끓어 죽어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다. 남은 네 식구를 데리고 그들 내외는 우곡현(羽曲縣) - 지금의 우현(羽縣) - 에 이르러 길가에 모옥(茅屋)을 짓고 살았다. 이제 내외는 늙고 병들었다. 게다가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니, 십 세 된 계집아이가 밥을 빌어다 먹는데, 다니다가 마을 개에게 물렸다. 아픈 것을 부르짖으면서 앞에 와서 누웠으니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을 몇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줄이고 흘렸다. (중략)

(다) 아내가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 “젊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 위의 이슬이요, 지초(芝草)와 난초 길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 같을 뿐입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누(累)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못 새가 다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 잃은 난조(난조)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하는 것은 인정(人情)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人力)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말을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라)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 여인이,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

(마)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고 망연(茫然)히 세상일에 뜻이 없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탐욕도 열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像)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그는 돌아와서 해현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石彌勒]이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재(私財)를 내서 정토사(淨土寺)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다.

16.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

- ㄱ. 환몽의 형식으로 보여 준 전기(傳奇)이다.
- ㄴ. 인물들의 내면 갈등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ㄷ. 전설적 요소로서 어떤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이 있다.
- ㄹ.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ㅁ. 내화의 우화를 통해 작품의 풍자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 ④ ㄱ, ㄷ, ㅁ ⑤ ㄷ, ㄹ, ㅁ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에는 스님도 세속적 욕망을 끊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

다.

- ② (나)에는 불행한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 설상가상의 면모가 드러난다.
- ③ (다)에는 이 작품의 주제가 나타난다.
- ④ (라)에는 주인공의 불교적 깨달음이 나타난다.
- ⑤ (마)에는 이 설화의 전설적 요소가 드러난다.

18. 다음 중 ㉠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나뭇아 청산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 가다가 저무러든 곳
되 드리 자고 가자. / 곳에서 푸대접하거든 님혜서나 자고
가자.
- ② 호화(豪華)도 거짓이요 부귀(富貴)도 꿈이오레 / 북망산(北
邙山) 언덕에 요령(요령) 소리 그쳐지면 / 아무리 뉘 웃고 애
달아도 미칠 길이 없느니
- ③ 이화(梨花)에 월백(월백)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라마는 / 다정(多情)
도 병(病)인 양하여 줌 못 드리 호노라.
- ④ 백설이 즈자진 골에 구름이 머흐레라. / 반가운 매화는 어
닌 곳에 피었느고. / 석양에 홀로 서 이서 갈 곳 몰라 호노
라.
- ⑤ 춘산에 눈 녹인 바름 건 듯 불고 간 되 없다. / 저근덧 비
러다가 불니고져 마리 우회 / 귀 밋틱 희목은 서리를 녹여
불가 호노라.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신라(新羅)가 서울이었을 때 세규사(世達寺)-지금의 흥교사(興敎寺)-의 장원(莊園)이 명주(溟洲) 날리군(捺李郡)-지리지(地理志)를 상고해 보면, 명주에는 날리군(捺李郡)이 없고 오직 날성군(捺城郡)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본래 날생군(捺生郡)이니 지금의 영월(寧月)이다. 또 우수주(牛首州) 영현(領縣) 날영군(捺靈郡)이 있는데 본래는 날이군(捺已郡)이요 지금의 강주(剛州)다. 우수주(牛首州)는 지금의 춘주(春州)니 여기에 말한 날리군(捺李郡)은 어느 곳인지 알수가 없다. -에 있었는데, 본사(本寺)에서 중 조신(調信)을 보내서 장원(莊園)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조신이 장원에 와서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좋아하고 아주 반했다.

여러 번 낙산사(洛山寺) 관음보살(觀音菩薩)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 이로부터 몇 해 동안에 그 여인에게 이미 배필이 생겼다. 그는 도 불당(佛堂)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다.

<중략>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날 때에 당신은 젊은 나이에 얼굴이 잘났으며 옷차림도 깨끗하였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어, 집을 나온 지 오십 년 동안에 정(情)은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엮혔으니 가위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이 해마다 더 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욱 닥쳐오는데 남의 집 감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수많은 문전(門前)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 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 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에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 위의 이슬이요, 지초(芝草)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 같을 뿐입니다.

㉞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누(累)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못새가 다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 잃은 난조(鸛鳥)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하는 것은 인정(人情)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人力)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말을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 여인이,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고 망연(惘然)히 세상일에 뜻이 없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탐욕도 열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像)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그는 돌아와서 해현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㉞돌미륵(石彌勒)이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재(私財)를 내서 ㉞정토사(淨土寺)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다.

- 「조신전」

19.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신은 꿈에서 갓 뒤 자신의 생각을 반성한다.
- ② 조신은 윤리적으로 옳바르지 않은 일을 추구했다.
- ③ 꿈속에서 김씨 남자는 조신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 ④ 꿈속에서 김씨 남자는 앞으로 살아갈 날을 염려하고 있다.

- ⑤ 꿈속에서 조신은 김씨 남자와의 이별을 내심 원하고 있었다.

20. ㉞를 통해 알 수 있는 김씨 부인의 의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 ② 새 출발을 위해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하다.
- ③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는 일이야말로 욕망에 구애받지 않는 길이다.
- ④ 서로의 존재 자체가 부담임을 인식하고 서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 ⑤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잘 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1. ㉞, ㉞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㉞과 ㉞은 모두 인연의 소중함을 상기시키는 소재이다.
- ② ㉞과 ㉞은 모든 사실이 꿈이었음을 확인시키는 소재이다.
- ③ ㉞과 ㉞은 모두 이 글이 지닌 진실성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㉞은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기능을 하고, ㉞은 과거를 돌아보는 기능을 한다.
- ⑤ ㉞은 인생의 무상감을 나타내고 ㉞은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 신라(新羅)가 서울이었을 때 세류사(世遶寺)—지금의 흥교사(興敎寺)—의 장원(莊園)이 명주(溟洲) 날리군(捺李郡)에 있었는데, 본사(本寺)에서 중 조신(調信)을 보내서 장원(莊園)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조신이 장원에 와서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좋아하고 아주 반했다.

여러 번 낙산사(洛山寺) 관음보살(觀音菩薩)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 이로부터 몇 해 동안에 그 여인에게는 이미 배필이 생겼다. 그는 또 불당(佛堂)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다.

꿈속에 갑자기 김씨 남자(娘子)가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뵈고 알게 되어 마음 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 억지로 딴 사람에게로 시집갔었습니다. 지금 내외(内外)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와 사십여 년 간 같이 살면서 자녀 다섯을 두었다. 집은 다만 네 벽뿐이고, 좋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해 갈

수가 없었고, 마침내 풀이 말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다. 이렇게 십 년 동안 초야(草野)로 두루 다니니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도 가릴 수가 없었다. 마침 명주(溟洲)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십오 세 되는 큰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어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다. 남은 네 식구를 데리고 그들 내외는 우곡현(羽曲縣)—지금의 우현(羽懸)—에 이르러 길가에 모옥(茅屋)을 짓고 살았다. 이제 내외는 늙고 병들었다. 게다가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니, 십 세 된 계집아이가 밥을 빌어다 먹는데, 다니다가 마을 개에게 물렸다. 아픈 것을 부르짖으면서 앞에 와서 누웠으니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을 몇 줄이고 흘렸다.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옷도 깨끗했었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어, 집을 나온 지 오십 년 동안에 정(情)은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엮혔으니 가위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로 날로 더욱 닥쳐오는데 남의 집 결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수많은 문전(門前)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울에 사랑에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위의 이슬이요, 지초(芝草)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입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누(累)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못 새가 다 함께 굶어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조(鸛鳥)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하는 것은 인정(人情)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人力)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말을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 여인이,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고 ㉡망연(惘然)히 세상 일에 뜻이 없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像)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그는 돌아와서 해현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石彌勒)이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재(私財)를 내서 정토사(淨土寺)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다.

22.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환몽소설의 효시로 구운몽에 영향을 주었다.
- ② ‘꿈-현실-꿈’으로 이어지는 환몽구조를 보이고 있다.
- ③ 조신의 ‘세속적 욕망’이 갈등의 원인이다.
- ④ 전설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물이 있다.
- ⑤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꿈속에서 사실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23. 위 글의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 ① 세속적인 욕망은 허황한 꿈 같은 것이고 고통의 근원이다.
- ② 구도자는 수도에 전념해야지 세속에 결눈질 해서는 안 된다.
- ③ 부모는 자식을 잃으면 절망에 빠져 삶의 의욕을 잃는다.
- ④ 사람은 성공보다 실패에서 인생을 더 많이 배운다.
- ⑤ 남녀 간의 사랑도 물질이 없으면 오래 갈 수 없다.

24.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기억 할 수가 없다.
- ② 불교에 귀의 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게 일었다.
- ③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 ④ 세속적 욕망이 사라졌다.
- ⑤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다.

25.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꿈속에서의 조신의 고통스런 삶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부처의 의도였음을 암시한다.
- ② 불교에 귀의 하는 것만이 모든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 ③ 인간의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은 모두 부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 ④ 현세의 모든 고통은 미래불인 미륵불을 통해서만 해결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 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부처의 자비임을

암시한다.

26. 친 ㉠과 관련 있는 한자성어 하나를 쓰고, 그 뜻을 서술하시오.

1. 한자성어 : ()

2. 뜻 : ()

< >

1. 한자성어는 하나만 쓰고, 그 뜻을 정확하게 쓰시오.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고 망연(茫然)히 세상 일에 뜻이 없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像)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그는 돌아와서 해현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石彌勒)이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재(私財)를 내서 ㉡정토사(淨土寺)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다.

27. 위 글의 밑줄 친 ㉠, ㉡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전설의 특징을 10자 내외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28. 위 글의 주인공이 꿈에서 깬 후 <보기>의 시적화자에 대해 비판의 말을 하려 할 때, 인용할 수 있는 작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唐唐唐(당당당) 唐 子(당추즈) 조협(早莢) 남기

紅(홍)실로 紅(홍)글씨 미요이다.

혀고시라 밀오시라 鄭少年(정소년)하.

위 내 가는 뒤 놔 갈세라.

葉(엽) 削玉纖纖(삭옥섬섬) 雙手(상수) 人 길해 削玉纖纖 雙手 人길해

위 携手同遊(휴수동유) 人 景(경) 그 엇더하니잇고.

①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無心)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

② 흰 손에 막뎌 잡고 흰 손에 가식 쥐고,

늙는 길 가식으로 막고 오는 白髮(백발) 막뎌로 치려터니,

白髮(백발)이 제 묻저 알고 즈름길노 오더라.

③ 방 안에 헛는 촉불 놀과 이별호엿관드

것츠로 눈물 디고 속 타는 줄, 모로도다.

더 촉불 날과 갓트여 속 타는 줄, 모로도다.

④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보.

고인을 못 보도 녀던 길 알쩍 잇거

녀던 길 알쩍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⑤ 五百年(오백년) 都邑地(도읍지)를 匹馬(필마)로 도르드니

산천은 의구호되 인결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옛날 신라(新羅)가 서울이었을 때 세규사(世遶寺) - 지금의 흥교사(興敎寺)-의 장원(莊園)이 명주(溟洲) 날리군(捺李郡)에 있었는데, 본사(本寺)에서 중 조신(調信)을 보내서 장원(莊園)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조신이 장원에 와서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좋아하고 그녀에게 아주 반했다.

(나) ㉠여러 번 낙산사(洛山寺) 관음보살(觀音菩薩)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로부터 몇 해 동안에 그 여인에게는 이미 배필이 생겼다. 그는 또 불당(佛堂)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다.

(다) 꿈속에 갑자기 김씨 낭자(娘子)가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뵈고 알 게 되어 마음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을 못 이겨 억지로 딴 사람에게로 시집갔었습니다. 지금 내외(內外)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라) 그녀와 사십여 년 간 같이 살면서 자녀 다섯을 두었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다. ㉠집은 다만 네 벽뿐이고, 좋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해 갈 수가 없었고, 마침내 풀이 말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다. 이렇게 십 년 동안 초야(草野)로 두루 다니니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도 가릴 수가 없었다. 마침 명주(溟洲)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십오 세 되는 큰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어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다. 남은 네 식구를 데리고 그들 내외는 우곡현(羽曲縣) -지금의 우현(羽縣)- 에 이르러 길가에 모옥(茅屋)을 짓고 살았다. 이제 내외는 늙고 병들었다. 게다가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니, 십 세 된 계집아이가 밥을 빌어다 먹는데, 다니다가 마을 개에게 물렸다. 아픈 것을 부르짖으면서 앞에 와서 누웠으니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을 몇 줄이고 흘렸다.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드 젊었으며 입은 옷도 깨끗했습니다. <중략>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못 새가 다 함께 굶어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조(鸛鳥)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하는 것은 인정(人情)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人力)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말을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마)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 여인이,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

(바)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고 망연(茫然)히 세상일에 뜻이 없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像)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사) 그는 돌아와서 해현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石彌勒)이었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재(私財)를 내서 정토사(淨土寺)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다.

- ① ㉠ : 인간의 세속적 욕망이 얼마나 끊기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준다.
- ② ㉡ : 매우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임을 나타낸다.
- ③ ㉢ : 꿈속의 체험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음을 암시한다.
- ④ ㉣ : 절을 세워 중생을 구제하라는 부처의 명령을 지시하는 물건이다.
- ⑤ ㉤ : 사원 연기설화로 전설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략)

꿈속에 갑자기 김씨 낭자(娘子)가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뵈고 알게 되어 마음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 억지로 딴 사람에게로 시집갔었습니다. 지금 내외(内外)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와 사십여 년 간 같이 살면서 자녀 다섯을 두었다. 집은 다만 네 벽뿐이고, 좋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해 갈 수가 없었고, ㉠마침내 풀이 말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다. 이렇게 십 년 동안 초야(草野)로 두루 다니니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도 가릴 수가 없었다. 마침 명주(溟洲)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십오 세 되는 큰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어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다. 남은 네 식구를 데리고 그들 내외는 우곡현(羽曲縣) -지금의 우현(羽縣)- 에 이르러 길가에 모옥(茅屋)을 짓고 살았다. 이제 내외는 늙고 병들었다. 게다가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니, 십 세 된 계집아이가 밥을 빌어다 먹는데, 다니다가 마을 개에게 물렸다. 아픈 것을 부르짖으면서 앞에 와서 누웠으니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을 몇 줄이고 흘렸다.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드 젊었으며 입은 옷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어, 집을 나온 지 오십년 동안에 정(情)은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엮혔으니 가위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욱 닥쳐오는데 남의 집 결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수많은 문전(門前)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터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 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이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29. 글에서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滿開(만피)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까?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 위의 이슬이요, 지초(芝草)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입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더 누(累)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못 새가 다 함께 굶어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조(鸞鳥)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하는 것은 인정(人情)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人力)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말을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 여인이,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꽃에서 깨었다.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고 망연(茫然)히 세상일에 뜻이 없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像)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그는 돌아와서 해현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石彌勒]이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 놓고 사재(私財)를 내서 정토사(淨土寺)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다.

30. 친 ㉠ ~ ㉣의 내용 상 의미를 한자성어(한자어)로 바꾸어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유리결식(琉璃乞食)
- ② ㉡ - 설상가상(雪上加霜)
- ③ ㉢ - 감탄고토(甘呑苦吐)
- ④ ㉣ - 불감청 고소원(不敢請固所願)
- ⑤ ㉤ - 자포자기(自暴自棄)

31. 다음 밑줄 친 시어 중,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밑줄 친 ㉤(꿈)과 내포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 ① 부생(浮生)이 꽃이거늘 공명(功名)이 아랑곳
현우귀천(賢愚貴賤)도 죽은 후면 다 한 가지
아마도 살아 한 잔 술이 즐거운가 하노라.

- 김천택

- ② 저근덧 녀진(力盡)하야 꽃음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쏜의 님을 보니
옥(玉) 그튼 얼굴이 반(半)이나마 늘거세라.
막음의 머근 말슴 슬궤장 슬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정(情)을 못다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 정철

- ③ 출하리 잠을 드러 쏜이나 보려 하니,
바람의 디는 뉘과 풀 속에 우는 즘생,
므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나.

- 허난설헌

- ④ 꽃에 비는 임이 신의(信義) 없다 하건마는
탐탐(貪貪)히 그리울제 꿈 아니면 어이보리
저 님아 꿈이라 말고 자주자주 뵈소서

- 명옥

- ⑤ 꽃잠에 꿀을 꾸어 십이루(十二樓)에 들어가니/
옥황(玉皇)은 우스시되 군선(群仙)이 꾸짖나다/
어즈버 백만억(百萬億) 창생(蒼生)을 어느결에 무르리.

- 윤선도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웃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로 그대와 나누어 입어, 집을 나온 지 오십 년 동안에 정(情)은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엮혔으니 가위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욱 닥쳐오는데 남의 집 결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수많은 문전(門前)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 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에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까?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 위의 이슬이요, 지초(芝草)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입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누(累)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못 새가 다 함께 굶어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조(鸞鳥)가 거울을 향하여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짜를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하는 것은 인정(人情)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人力)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말을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 여인이,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아침이 되었다. ㉔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고 망연(茫然)히 세상일에 뜻이 없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像)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그는 돌아와서 해현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石彌勒)이었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재(私財)를 내서 정토사(淨土寺)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㉕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이민수 역)

32. ~ 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 금슬지락(琴瑟之樂)의 상황을 의미한다.
- ② ㉔ : 부인은 세속에 시달려서 더 이상 부부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③ ㉔ : 제각기 먹고 살 방도를 찾으면서 서로 그리워하는 것이 가난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다.
- ④ ㉔ : 꿈속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겪고 현실에 돌아와서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
- ⑤ ㉔ : 조신의 말년이 애매하게 처리된 것은 내용 전개상 중요한 의미를 띠지 못하기 때문이다.

33. ㉔는 주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문장이다.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음 문장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쓰시오.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꿈속에 갑자기 김씨 낭자(娘子)가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뵈고 알 게 되어 마음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을 못 이겨 역지로 판사람에게로 시집갔었습니다. 지금 내외(內外)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와 사십여 년 간 같이 살면서 자녀 다섯을 두었다. ㉑집은 다만 네 벽뿐이고, 좋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해 갈 수가 없었고, 마침내 풀이 말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다. 이렇게 십 년 동안 초야(草野)로 두루 다니니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도 가릴 수가 없었다. 마침 명주(溟洲)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십오 세 되는 큰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어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다. 남은 네 식구를 데리고 그들 내외는 우곡현(羽曲縣)-지금의 우현(羽縣)-에 이르러 길가에 모옥(茅屋)을 짓고 살았다. ㉒이제 내외는 늙고 병들었다. 게다가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니, 십 세 된 계집아이가 밥을 빌어다 먹는데, 다니다가 마을 개에게 물렸다. 아픈 것을 부르짖으면서 앞에 와서 누웠으니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을 몇 줄이고 흘렸다.

[나]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옷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로 그대와 나누어 입어, 집을 나온 지 오십 년 동안에 정(情)은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엮혔으니 가위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욱 닥쳐오는데 남의 집 결방살이나 하찮은 음식 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수많은 문전(門前)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위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 주지 못하는 데 어느 겨를에 사랑에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 위의 이슬이요, 지초(芝草)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입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누(累)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못 새가 다 함께 굶어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조(鸞鳥)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하는 것은 인정(人情)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人力)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말을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각각 아이 둘씩 나누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 여인이,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

[다]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고 망연(茫然)히 세상일에 뜻이 없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像)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그는 돌아와서 해현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石彌勒]이었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재(私財)를 내서 정토사(淨土寺)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다.

34. [가]에서 ㉠의 상태에 해당하는 속담은?

- ① 쌀독에서 인심난다.
- ② 서 발 막대 거칠 것 없다.
- ③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 ④ 가난 구제는 나라도 어렵다.
- ⑤ 없는 놈이 밥술이나 먹게 되면 과객 밥 한 술 안 준다.

35. 글 [다]에서 주인공의 심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 ① 當時(당시)에 녀든 길흠 몇 톨 버려 두고
어디 가 든다가 이제야 도라온고
이제야 도라오나니 년 되 므음 마로리.
- ② 간 밤의 부던 바람에 눈서리 치단말가.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다 기우러 가노미라.
흐믓며 못 다 뵈 곳이야 닐러 므슴흐리오.
- ③ 강호(江湖)에 노는 고기 즐인다 부러마라.
어부(漁夫) 도라간 후(後) 옛느니 백로(白鷺) | 로다.
종일(終日)을 쓰락 줌기락 한가(閑暇)홀썩 업세라.
- ④ 검으면 희다하고 희면 검다하네.
검거나 희거나 올타리리 전혀업다.
출하로 귀먹고 눈감아 듯도보도 말니라.
- ⑤ 내시름 어디 두고 늑믹 우음 불리잇가.
내 술잔 어디 두고 늑믹 므레 들니잇가.
옥ㄴ툼 처엄 므음이야 가실주리 이시라.

36. (1) 글 [가]에서 ㉠의 상황과 상반된 한자성어(漢字成語)를 쓰시오. (한글로 써도 무방함.)

(2) 위 글에서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용모나 부부 되기로 한 언약이 세파에 시달려 더 이상 지키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구절을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시오.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신라(新羅)가 서울이었을 때 세규사(世規寺)의 장원(莊園)이 명주(溟洲) 날리군(捺李郡)에 있었는데, 본사(本寺)에서 중 조신(調信)을 보내서 장원(莊園)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조신이 장원에 와서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좋아하고 그녀에게 아주 반했다.

여러 번 낙산사(洛山寺) 관음보살(觀音菩薩)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로부터 몇 해 동안에 그 여인에게는 이미 배필이 생겼다. 그는 또 불당(佛堂)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다.

꿈속에 갑자기 김씨 낭자(娘子)가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뵈고 알 게 되어 마음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을 못 이겨 억지로 판사람에게로 시집갔었습니다. 지금 내외(內外)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와 사십여 년 간 같이 살면서 자녀 다섯을 두었다. 집은 다만 네 벽뿐이고, 좋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해 갈 수가 없었고, 마침내 풀이 말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다. 이렇게 십 년 동안 초야(草野)로 두루 다니니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도 가릴 수가 없었다. 마침 명주(溟洲)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십오 세 되는 큰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어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다.

(중략)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옷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로 그대와 나누어 입어, 집을 나온 지 오십 년 동안에 정(情)은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엮혔으니 가위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욱 닥쳐오는데 남의 집 결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수많은 문전(門前)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 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에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 위의 이슬이요, 지초(芝草)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입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누(累)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못 새가 다 함께 굶어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조(鸛鳥)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하는 것은 인정(人情)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人力)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말을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 여인이,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고 망연(茫然)히 세상일에 뜻이 없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열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像)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그는 돌아와서 해현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石彌勒]이었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 놓고 사재(私財)를 내서 정토사(淨土寺)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다.

- 「조신전(調信傳)」 -

37.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 사건을 직접 서술하여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 ② 꿈을 꾸기 전 조신의 행동은 세속적 욕망을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 ③ 돌미륵, 사원 등 실제 현실의 증거물로 확인하려는 의식이 나타나 있어 전설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 ④ 구체적 세부 사실을 묘사하기보다는 집약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주요 모티브만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⑤ 꿈에서 깨어난 조신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에서는 조신이 꿈 속에서 경험한 삶의 고뇌가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38. (중략) 이후 부인의 대화 속에 내포된 ‘불교적 깨달음’의 궁극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속적인 욕망은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
- ② 인생의 불행은 세속적 욕망의 강렬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③ 남녀간의 사랑도 물질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 ④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욕망 자체를 놓아 버리는 것이다.
- ⑤ 인간이란 존재는 근본적으로 연약하여 쉽게 자신의 욕망을 바꾸게 마련이다.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신라(新羅)가 서윽이었을 때 세규사(世達寺)—지금의 흥교사(興敎寺)—의 장원(莊園)이 명주(溟洲) 날리군(捺李郡)—지리지(地理志)를 상고해 보면, 명주에는 날리군(捺李郡)이 없고 오직 날성군(捺城郡)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본래 날생군(捺生郡)이니 지금의 영월(寧越)이다. 또 우수주(牛首州) 영현(領懸)에 날영군(捺靈郡)이 있는데 본래는 날이군(捺已郡)이요 지금의 강주(剛州)다. 우수주(牛首州)는 지금의 춘주(春州)니 여기에 말한 날리군(捺李郡)은 어느 곳인지 알수가 없다. —에 있었는데, 본사(本寺)에서 중 조신(調信)을 보내서 장원(莊園)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조신이 장원에 와서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좋아하고 아주 반했다.

여러 번 낙산사(洛山寺) 관음보살(觀音菩薩)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 이로부터 몇 해 동안에 그 여인에게는 이미 배필이 생겼다. 그는 또 불당(佛堂)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다.

꿈 속에 갑자기 김씨 낭자(娘子)가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뵈고 알게 되어 마음 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 억지로 딴 사람에게로 시집갔었습니다. 지금 내외(內外)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와 사십여 년 간 같이 살면서 자녀 다섯을 두었다. 집은 다만 네 벽뿐이고, 좋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해 갈수가 없었고, 마침내 꼴이 말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다. 이렇게 십 년 동안 초야(草野)로 두루 다니니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도가릴 수가 없었다. 마침 명주(溟洲)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십오 세 되는 큰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어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다. 남은 네 식구를 데리고 그들 내외는 우곡현(羽曲縣)—지금의 우현(羽懸)—에 이르러 길가에 모옥(茅屋)을 짓고 살았다. 이제 내외는 늙고 병들었다. 게다가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니, 십 세 된 계집아이가 밥을 빌어다 먹는데, 다니다가 마을 개에게 물렸다. 아픈 것을 부르짖으면서 앞에 와서 누웠으니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을 몇 줄이고 흘렸다.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드 젊었으며 입은 웃도 깨끗했었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어, 집을 나온 지 오십년 동안에 정(情)은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얹혔으니 가위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욱 닥쳐오는데 남의 집 결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수많은 문전(門前)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이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 위의 이슬이요, 지초(芝草)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입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더 누(累)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못 새가 다 함께 굶어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조(鸛鳥)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하는 것은 인정(人情)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人力)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말을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 여인이 말한다.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

다.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고 망연(茫然)히 세상일에 뜻이 없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像)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그는 돌아와서 해현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石彌勒)이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재(私財)를 내서 정토사(淨土寺)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다.

39.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물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세속적 욕망과 종교적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 ③ 액자 구성을 취하며 작품의 풍자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④ 작품의 내용이 천상과 지상의 이중구조로 되어있다.
- ⑤ 현실에 대한 비판을 토로하며 이상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4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세속적 욕망을 이끄는 대상
- ② ㉡ - 인생은 무상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다.
- ③ ㉢ - 한자성어에 토사구팽에 해당한다.
- ④ ㉣ - 인간의 욕망의 끝없음을 헤아릴 수 있다.
- ⑤ ㉣ - 사찰연기(기원) 설화임을 알 수 있다.

41. (1) 위 글에서 나타난 각몽 후 찾은 돌미륵은 꿈과 현실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밝혀서 쓰시오.

(2) 조신이 꿈속의 체험을 통하여 각몽전과 각몽후에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드 젊었으며 입은 웃도 깨끗했었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그대

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어, 집을 나온 지 오십 년 동안에 정(情)은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엮혔으니 가위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로 날로 더욱 닥쳐오는데 남의 집 결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수많은 문전(門前)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울에 사랑이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 위의 이슬이요, 지초(芝草)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입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누(累)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못 새가 다 함께 굶어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조(鸞鳥)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하는 것은 인정(人情)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人力)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말을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 여인이,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고 망연(惘然)히 세상 일에 뜻이 없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像)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그는 돌아와서 해현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石彌勒)이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재(私財)를 내서 정토사(淨土寺)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다.

42. () 글을 읽고 감상을 적은 것이다. 감상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 ① 서현 :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조신의 모습을 통해 당시 문란한 사회상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어.
- ② 윤아 : 현실-꿈-현실의 환몽구조로 이루어 있고 꿈은 어떤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되고 있어.
- ③ 태연 : 꿈에서 깨어난 조신은

“호화도 거짓이요 부귀도 꿈이온대
북망산 언덕에 요령소리 그치면
아무리 뉘우치고 애다라도 미칠 길이 없나니”
의 화자의 마음과 비슷했을 거야.

- ④ 효연 : 본격적인 중세시대였던 고려시대 문학의 특징 중 하나인 불교 문학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야.
- ⑤ 수영 : 돌미륵, 정토사라는 소재는 이 글이 증거물을 필요로 하는 전설임을 보여주는 요소야.

43. (가)글의 조신과 '구운몽'의 성진이 꿈속에서 겪은 바를 비교해 보고, 꿈에서 깬 뒤 두 주인공의 변화가 어떻게 같은지 서술하시오.

※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꿈속에 갑자기 김씨 낭자(娘子)가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뵙고 알게 되어 마음 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 억지로 떠 사람에게로 시집갔었습니다. 지금 내외(内外)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와 사십여 년 간 같이 살면서 자녀 다섯을 두었다. 집은 다만 네 벽뿐이고, 좋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해 갈 수가 없었고, 마침내 풀이 말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다. 이렇게 십 년 동안 초야(草野)로 두루 다니니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도 가릴 수가 없었다. 마침 명주(溟洲)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십 오세 되는 큰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어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다. 남은 네 식구를 데리고 그들 내외는 우곡현(羽曲懸)에 이르러 길가에 모옥(茅屋)을 짓고 살았다. ㉡이제 내외는 늙고 병들었다. 게다가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니, 십 세 된 계집아이가 밥을 빌어다 먹는데, 다니다가 마을 개에게 물렸다. 아픈 것을 부르짖으면서 앞에 와서 누웠으니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을 몇 줄이고 흘렸다.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옷도 깨끗했었습니다.(중략)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누(累)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못 새가 다 함께 굶어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조(鸞鳥)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㉔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하는 것은 인정(人情)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人力)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말을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중략)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 ㉕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고 망연(惘然)히 세상일에 뜻이 없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像)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그는 돌아와서 해현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石彌勒)이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재(私財)를 내서 정토사(淨土寺)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다.

- 조신전

44. 작품의 주제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가을 바람에 이렇게 힘들여 읊고 있건만/ 세상 어디에도 날 알아주는 이 없네/ 창 밖에 깊은 밤비 내리는데/ 등불 아래 천만리 떠나간 마음 - 최치원
- ②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은 의구(依舊) 하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없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인가 하노라. - 길재
- ③ 절집이 흰 구름에 묻혀 있기에/ 흰 구름을 스님은 쓸지를 앓아/ 바깥 손님 와서야 문 열어 보니/ 온 산의 송화는 하마 석었네. - 이달
- ④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山) 절로 수(水) 절로 산수간(山水間)에 나도 절로절로/ 그 중(中)에 절로 즈란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 - 송시열
- ⑤ 노래 삼킨 사름 시름도 하도할사/ 닐러 다 못 닐러 불려나 푸듯든가/ 진실(眞實)로 풀릴 거시면은 나도 불려 보리라. - 신희

45.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실 - 꿈 - 현실의 환몽구조를 이루고 있다.
- ② 애니메이션과 불교문화가 접목되어 나타나 있다.
- ③ 신희사대부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문학양식이다.
- ④ 사원연기설화로 사원의 기원이나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⑤ 기이한 이야기를 문언(文言)으로 기록한 중국문학에서 발달한 서사양식의 하나이다.

46. ㉑ ~ ㉕에 해당하는 사자성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수원수구(誰怨誰咎)
- ② ㉒ - 설상가상(雪上加霜)
- ③ ㉓ - 설빈화안(雪鬢花顏)
- ④ ㉔ - 감탄고토(甘呑苦吐)
- ⑤ ㉕ - 일장춘몽(一場春夢)

47.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워 넣은 다음, 반드시 완성된 문장 전체를 쓰시오.

<보기>

고려시대 신희사대부의 등장으로 문학사에 새로이 등장한 문학양식은 (), (), () 등이다.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신라(新羅)가 서울이었을 때 세규사(世遶寺)—지금의 흥교사(興敎寺)—의 장원(莊園)이 명주(溟洲) 날리군(捺李郡)—에 있었는데, 본사(本寺)에서 중 조신(調信)을 보내서 장원(莊園)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조신이 장원에 와서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좋아하고 아주 반했다.

여러 번 낙산사(洛山寺) 관음보살(觀音菩薩)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 이로부터 몇 해 동안에 그 여인에게는 이미 배필이 생겼다. 그는 또 불당(佛堂)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다.

꿈속에 갑자기 김씨 낭자(娘子)가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뵈고 알게 되어 마음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 억지로 떠난 사람에게로 시집갔었습니다. 지금 내외(內外)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와 사십여 년 간 같이 살면서 자녀 다섯을 두었다. 집은 다만 네 벽뿐이고, 좋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해 갈수가 없었고, 마침내 꼴이 말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다. 이렇게 십 년 동안 초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야(草野)로 두루 다니니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도 가릴 수가 없었다. 마침 명주(溟洲)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십오 세 되는 큰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어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다. 남은 네 식구를 데리고 그들 내외는 우곡현(羽曲縣)—지금의 우현(羽懸)—에 이르러 길가에 모옥(茅屋)을 짓고 살았다. 이제 내외는 늙고 병들었다. 게다가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니, 십 세 된 계집아이가 밥을 빌어다 먹는데, 다니다가 마을 개에게 물렸다. 아픈 것을 부르짖으면서 앞에 와서 누웠으니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을 몇 줄이고 흘렸다.

아내가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옷도 깨끗했었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어, 짐을 나운 지 오십 년 동안에 정(情)은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엮혔으니 가위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욱 닥쳐오는데 남은 집 결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수많은 문전(門前)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울에 사랑에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 있었습니까?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위의 이슬이요, 지초(芝草)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입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누(累)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못 새가 다 함께 굶어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조(鸛鳥)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하는 것은 인정(人情)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人力)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말을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 여인이,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고 망연(茫然)히 세상일에 뜻이 없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像)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그는 돌아와서 해현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石彌勒)이다. 물로 씻어서 근처

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 놓고 사재(私財)를 내서 정토사(淨土寺)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다.

48. 위 글을 모방하여 만들었다고 할 때, 창작 과정에서 고려했음직한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만중, '구운몽'		
현실 [성진]	꿈 [꿈]	현실 [성진]
· 초월적 천상의 세계	→ 세속적 지상의 세계	→ 초월적 천상의 세계
· 유교적 입신양명	→ 세속적 욕망의 성취	→ 인생무상을 깨달음
· 형이상학적 세계	→ 형이하학적 세계	→ 형이상학적 세계
· 불교	→ 유교	→ 불교

- ① 꿈을 깬 뒤 깨달음은 동일하게 형상화해야겠어.
- ② 꿈에서 겪은 내용은 위 글과 반대로 설정해보자.
- ③ 세속적 삶의 온갖 고통을 다 겪고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담아 보자.
- ④ 현실-꿈-현실이라는 위 글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여 구성하자.
- ⑤ 인생무상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영웅소설의 성격을 빌려 보면 어떨까.

49. <보기>의 관점으로 '조신'이 ㉠에 대해 답하는 글을 쓸 때 작성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를 통해 세속적 욕망의 세계를 꿈으로 설정함으로써 욕망의 덧없음을 지적하고자 했으며, 그러한 욕망의 세계에서 승려 조신이 겪은 체험을 고통에 찬 것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인생무상과 욕망의 덧없음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삶의 고통과 환희는 그 누구의 잘못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갖고자 함이 고통의 근원이 된다고 하였다.

그렇게 합시다. 여보. ㉠당신의 말을 들으니 슬픔이 일면 서도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료. ㉡우리가 오래 전에 사랑으로 만나 수십 년을 함께 생활하였으나 그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기쁨보다 고통이 더 많았소이다. 다 함께 굶어 죽느니 헤어져 살면서 그리워하는 편이 낫겠다는 당신의 말이 내 가슴을 치는구료. ㉢내

가장으로서 당신과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았다면 우린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 자신의 무능함이 결국 당신을 보내는 이유가 되어 버렸소. 그동안 고생 많았소이다. ㉔당신이 말한 대로 옛날의 기쁘던 일이 오늘날 불행의 씨앗이었소. ㉕우리가 헤어지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 계속 살아가고자 함이니 부디 오늘의 이별을 슬퍼하지만 말고 마음을 굳게 먹고 헤어지기로 합시다.

○○○년 ○월 ○일 조신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ebs부교재] 차귀 설화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ebs부교재] 용소와 여느리 하위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을 와두 당최 주질 았구, 또 대개 중들이 (인지) 그 시주를 하러 와두 도무지 주지를 았구,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감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인지) 그 용소 있는 데서 한 이십 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거기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구서, 우정 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설람,

“이놈, 너이 중놈들이란 것은 불농불사하구, 땡기면서 얻어만 먹구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루 인지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구.”

소리를 질러두 그대루 그 중이 이제 가지를 았구섬날 독경을 하구 있으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대개 샅이라는 게 있지 마는 옛날에는 저 그것을 뭐이라구 하나, 부삽이라구 하나, 그거 있는데 그걸루 두엄터미에섬날 쇠통을 퍼가 주구서는,

“우리 집에 쌀은 줄 꺼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구서는 바람에다가 쇠통을 엇단 말야. 그래두 그 중은 조금두 낫색두 변하지 았구서, 거저 ‘나무아미타불’ 만 부르다가 그 쇠통을 걸머진 채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장재 침지의 머느리가 인제 쌀을 씻구 있다가, 그 광경을 보구서, 그 중 보구서는 얘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구.”

그러면서 쌀, 씻든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섬낭, 그 바가지에다 여쭙단 말야. 그러니까 그 중이 머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인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평소애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구서 빨리 나와섬낭, 저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질하라구.” 그랬단 말야.

그러니까 그 머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방 안에 자기 아들을, 뉘어서 재우든, 아이를 들쳐업구, 또 그 여자가 (인지) 명지를 짜던 그 명지 도토마리를 끊어서 이구 나오다가, 그 또 자기네 집에서 개를,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 가지구서 나와서는, 그 불타산을 향해서 달음박질루 가는데, 어린애를 업구 명주 도토마리를 이구, 개를 불러 가지구 그 불타산을 향해서 얼마쯤 가는데, 그 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리면서 뇌성벽력을 하더니 말야. 근데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나면,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는 거를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갑자기 뇌성벽력을 하면서 그 벼락 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뒤를 돌아봤단 말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됐어. 그 사람이 그만 화

석이 되구 말았다는 게야. 개두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두 불타산 아래서 얼마 내려오다가서 그 비속하니 거기 사람들은 이것이 머느리가 화석된 게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역시 사람 모양하고, 뭐 머리에 뭐 인 거 같은 거 하고, 그 아래 개 모양 같은, 그런 화석이 아직도 있단 말야. 한테 그때 그 이 벼락을 치면서 장재 침지네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몇백 길이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소가 됐단 말야. 한테 그 소가 어느 만침 넓으나 하면, 여기 (어린이 놀이터)보담두 더 넓은데, 이거 고만 두 배쯤 되는 품인데 그 소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물 나오는 소리가 (쿵쿵쿵쿵쿵) 하면서 그 곁에 가면 이제 지반이 울린단 말야, 이리 이리 너무 물이 많이 나와서 그 물을 가지구서 몇 만 석 되는,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수천 정보에 그 평야애, 눈에 물을 소에서 나오는 물 가지구서 대는데, 그 물은 아무리 비가 와두 느는 뱀이 없구, 아무리 가물어두 주는 뱀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깊으나 볼라구 명지실을 갖다가, 돌을 놓어서는 재니까 명지실 몇을 놓어도 도무지 끝을摸는다는, 그만침 깊은 소가 됐단 말야. ([A])

50.

중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위 글의 일관성과 통일성, 단계성을 모두 충족시키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러니, 이게 말이 안되지만서두, 다 그런 거야. 옛날 이야기라는 게인지 그저 허허 웃고 지나가야지, 따지면 안돼.
- ② 하지만, 지금은 그 물이 다 말라서, 흔적도 남아 있지를 았다는구먼. 그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겠지?
- ③ 그래서, 용소가 명지실로 가득 차서, 해마다 실 치우느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대. 뭐든 아껴야 잘 사는 게야.
- ④ 그러니, 그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남도 도울 줄 알아야하고, 너무 혼자 잘 살라 그러지 말고
- ⑤ 그러나, 자업자득(自業自得), 권선징악(勸善懲惡)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좀 아쉽지? 베풀며 살아야 돼.

51.

위 글의 구성방식과 내용을 참고하여 영화를 만들 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한강에 몰래 방류된 독극물로 인해 가물치가 돌연변이 ‘괴물’로 변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해야겠군.
- ② 괴 생물체 ‘용가리’가 불을 뿜고, 바다가 갈라지는 등의 다양한 효과를 고려해야겠어.
- ③ 아이를 유괴하고 살해한 범인을 ‘금자새’가 응징하는 것을 줄거리로 삼아야겠군.
- ④ 전학 온 첫날, 싸움을 일으켜 방과 후 옥상에서 결투하기까지 하루의 일을 순차적으로 구성해야겠어.
- ⑤ 평범한 여인 ‘정혜’가 겪게 되는 외로움과 상처, 고난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삶을 재조명해야겠어.

52.

위 작품을 읽은 학생들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① 머느리가 뒤를 돌아본 것은 단순히 놀랐기 때문일까? “뒤”라는 단어가 지닌 “미련”의 의미가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닐까?
- ② 결국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아. ‘인지’라는 군말의 반복은 비극으로 치닫는 과정의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어.
- ③ 갑자기 어린이 놀이터는 무슨 말일까? 이 이야기는 채록(採錄)된 것이라고 했으니, 구연 장소가 ‘놀이터’임을 말하는 것이겠지?
- ④ ‘쿵쿵쿵쿵’은 호랑이가 ‘어흥’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서 실제 물이 쏟아지고 있는 생동감을 느끼게 해.
- ⑤ 황해도 장연에 실제 용소와 머느리 바위가 있는 걸 보면 꼭 사실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이 이야기가 전설이어서 그런가봐.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용소는 장연읍에서 한 이십 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에 장연읍에서 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몽금포타령이 있는 데거든.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인지 바로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나 할 꺼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나)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재 침지네 집터자리라 그래. 장재 침지네 집터자리네, <중략> 그 영감이 아주 깡쟁이가 돼서, 인지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두 주지 않구,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라서 <중략>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구서, 우정 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설람,

“이놈, 너이 중놈들이란 것은 불농불사하구, 땡기면서 얻어만 먹구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루 인지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구.”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인지 대개 삽이라는 게 있지마는 옛날에는 저 그것을 뭐이라구 하나, 부, 부삽이라구 하나, 인지 그거 있는데 그걸루 두엄더미에섬낭 쇠통을 퍼 가주구섬낭,

“우리 집에 쌀은 줄 거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구섬낭 바람에다가 쇠통을 엇단 말야. 그래두 그 중은 조금두 낫색두 변하지 않구서, 거저 ‘나무아미타불’ 만 부르다가 그 쇠통을 걸머진 채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장재 침지의 머느리가 인제 쌀을 씻구 있다가, 그 광경을 보구서, 그 중 보구섬낭 얘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天性)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구.”

그러면서 쌀, 씻든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섬낭, 그 바람에다 여쭙단 말야.

(다) 그러니까 그 중이 머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인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루 들어가서,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어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구서 빨리 나와섬낭, 저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질하라구.”

그랬단 말야. 그러니까 그 머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루 들어가서, 방 안에 자기 아들을, 뉘어서 재우든, 아이를 들쳐업구, 또 그 여자가 인지 명지를 짜던 그 명지 도톰마리를 꿰어섬낭을 이구 나오다가, 그 또 자기네 집에서 개를, 아주 오마 잘 거시기 하던 모낭

이야.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 가지구서 나와섬낭, 그 불타산을 향해서 달음박질루 가는데, <중략> 그 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가분자기 흐리면서 뇌성벽력을 하더니 말야.

(라) 근데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나면,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는 거를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가분자기 뇌성벽력을 하면서 그 벼락 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인지 뒤를 돌아봤단 말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돼서,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구 말았다는 게야. <중략> 한데 그때 그 이 벼락을 치면서 장재 침지네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몇백 길이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소가 됐단 말야.

(마) 한데 그 소가 어느 만침 넓으냐 하면, 여기 어린이 놀이터 보담두 더 넓은데, 이거 고만 두 배쯤 되는 품인데 그 소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중략> 그 물은 아무리 비가 와두 느는 뱀이 없구, 아무리 가물어두 주는 뱀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깊으냐 몰라구 명지실을 갖다가, 돌을 넣어서는 재니까 명지실 뿜을 넣어도 도무지 끝을 몰른다는, 그만침 깊은 소가 됐단 말야.

53. 같은 글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 묶은 것은?

- < >
- ㉠ 주로 비극적인 결말과 인물이 제시된다.
 - ㉡ 현실을 초월한 영웅적인 인물이 주인공이다.
 - ㉢ 국가나 민족을 배경으로 하면서 신성성을 강조한다.
 - ㉣ 사건의 증거물이나 장소를 제시하여 이야기의 진실성을 중시한다.
 - ㉤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며, 이야기의 흥미를 중시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5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투리를 적절히 사용하여 향토색이 느껴진다.
- ② 군소리가 많이 들어가서 구어체임을 알게 해 준다.
- ③ 전체적으로 인과적인 내용 구성으로 조직되어 있다.
- ④ 장재 침지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이상과 좌절을 보여준다.
- ⑤ 구체적인 지명들을 사용하여 이야기의 내용에 신빙성을 준다.

55. 위 글을 읽은 독자가 ‘장재 침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들려줄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종두득두(種豆得豆) ② 동족방뇨(凍足放尿)
- ③ 결자해지(結者解之) ④ 유비무환(有備無患)
- ⑤ 새옹지마(塞翁之馬)

56. 위 글 전체의 짜임 중 생략해도 전체의 내용에 지장이 없는 부분은?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57. ()의 밑줄 친 ‘부삽’은 <보기>의 문법 현상이 적용된 어휘이다. <보기>의 ㉠,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제 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 합성어나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에서 앞 단어의 ‘ㄹ’ 받침이 발음되지 않는 것은 발음되지 않는 형태로 적는다. 이것은 합성어나,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결합하여 된 파생어의 경우는 실질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원칙에 벗어나는 규정이지만, 역사적인 현상으로서 ‘ㄹ’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원적인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 것이다.

㉡ 한자 ‘불(不)’이 첫소리 ‘ㄷ, ㅈ’앞에서 ‘부’로 읽히는 단어의 경우도 ‘ㄹ’이 떨어진 대로 적는다.

- ① ㉠ - 우짚다 ② ㉠ - 미단이 ③ ㉠ - 화살
④ ㉡ - 부주의 ⑤ ㉡ - 부나비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용소는 장연읍에서 한 이십 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장연읍에서 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몽금포타령이 있는 데거든.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인지 바로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나 할 거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재 첩지네 집터자리라 그래. 장재 첩지네 집터자리한테, 거기서 그 영감이 인지 수천 석 하는 부자루 아주 잘 살구 인지 거기다 좋은 집을 짓구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깡쟁이가 돼서,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두 주지 않구,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래서 거기 사람들이 인지 말하자면, ‘돼지,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라네.

(나)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거기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구서, ㉡우정 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인지 시주를 해달라고, <중략>

소리를 질러두 그대루 인지 그 중이 이제 가지를 앓구섬날 독경을 하구 있으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대개 삽이라는 게 있지마는 옛날에는 저 그것을 뭐이라구 하나, 부, 부삽이라구 하나, 인지 그거 있는데 그걸루 두엄더미에섬낭 쇠똥을 퍼 가주구 섬낭,

“우리 집에 쌀은 줄 거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구섬낭 바랑에다가 쇠똥을 열단 말야.

(다) 우물가에서 그 장재 첩지의 머느리가 인제 쌀을 씻구 있다가, 그 광경을 보구서, 그 중 보구섬낭 얘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天性)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 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구.”

그러면서 쌀, 씻은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섬낭, 그 바랑에다 여쭙단 말야. 그러니까 그 중이 머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인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루 들어가서, 평소애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어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구서 빨리 나와섬낭, 저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질하라구.”

그랬단 말야.

(라) 근데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나면,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는 거를 인지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가분자기 뇌성벽력을 하면서 그 벼락 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인지 뒤를 돌아봤단 말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돼서,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구 말았다는 게야. <중략> ㉤그 물은 에 아무리 비가 와두 느는 뱀이 없구, 에 아무리 인지 가물어두 주는 뱀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깊으나 몰라구 명지실을 갖다가, 돌을 넣어섬낭 하니까 명지실을 몇을 넣어도 도무지 끝을 몰른다는, 그만칠 깊은 소가 됐단 말야.

58. 이 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① 장연읍이라는 특정 지역을 넘어 체계적으로 널리 전해진다.
② 기록문학으로 전해지는 것을 구연자가 실감나게 읽어주는 이야기이다.
③ 이 이야기는 구체적 증거물로 인해 진실된 이야기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④ 주인공은 운명적으로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⑤ 장재첩지 영감을 통해 절대적 이상 세계와 세속적 삶에 대한 인간의 갈등을 보여 준다.

59. 글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 - 구어체를 사용하여 구연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② ㉡ - 사투리를 사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주고 있다.
③ ㉢ -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설명으로 생략해도 무방하다.
④ ㉣ - 군말 사용으로 내용 전개에 긴박감을 주고 있다.
⑤ ㉤ - 과장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신비성을 높인다.

60. 다음은 위 글의 내용을 구술 형태로 요약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지시어와 접속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 장연읍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몽금포로 가는 길옆에 용소라는 곳이 있어.
㉡ () 용소는 원래 장재 첩지네 집터 자리였지.
㉢ 왜 그렇게 되었나 하면 첩지 영감은 부자이면서도 아주 구두쇠 같은 사람이었지.
㉣ () 하루는 그 영감의 소문을 듣고 근처 불타산에 있는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그 영감을 찾아갔지.
㉤ () 영감은 시주를 받으러 온 스님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쇠똥을 퍼 주었지.

- ① 저, 그리고, 그러므로 ② 이, 그래서, 그렇지만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③ 그, 그런데, 그랬더니 ④ 저, 그런데, 그러해서
⑤ 그, 그래서, 왜냐하면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재 침지네 집터자리라 그래. 장재 침지네 집터자리네, 거기서 그 영감이 수천 석 하는 부자루 아주 잘 살구 인지 거기다 좋은 집을 짓구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깽쟁이가 돼서,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두 주지 않구,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래서 거기 사람들이 말하자면, ‘돼지,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래네. 그래서 웬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을 와두 당최 주질 않구, 또 대개 중들이 인지 그 시주를 하러 와두 도무지 주지를 않구,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감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인지 그 용, 용소 있는 데서 한 이십 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거기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구서, 우정 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서,

“이놈, 너이 중놈들이란 것은 불농불사하구, 땀기면서 얻어만 먹구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루 인지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구.”

소리를 질러두 그대루 그 중이 이제 가지를 앓구섬날 독경을 하구 있으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대개 사이라는 게 있지 마는 옛날에는 저 그것을 뭐이라구 하나, 부, 부삽이라구 하나, 인지 그거 있는데 그걸루 두엄더미에섬날 쇠통을 퍼가 주구섬날,

“우리 집에 쌀은 줄 꺼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구서는 바랑에다가 쇠통을 열단 말야. 그대루 그 중은 조금두 낮색두 변하지 않구서, 거저 ‘나무아미타불’ 만 부르다가 그 쇠통을 걸머진 채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장재 침지의 머느리가 인제 쌀을 씻구 있다가, 그 광경을 보구서, 그 중 보구서는 얘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구.”

그러면서 쌀, 씻든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섬날, 그 바랑에다 여쭙단 말야. 그러니까 그 중이 머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인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루 들어가서,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어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구서 빨리 나와서는, 저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질하라구.”

그랬단 말야. 그러니까 그 머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루 들어가서, 방 안에 ㉢자기 아들을, 뉘어서 재우든, 아이를 들쳐업구, 또 그 여자가 인지 명지를 짜던 그 ㉣명지 도토마리를 끊어서 이구 나오다가, 그 또 자기네 집에서 개를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 가지구서 나와서는, 그 불타산을 향해서 달음박질루 가는데, 어린애를 업구 명주 도토마리를 이구, 개를 불러 가지구 그 불타산을 향해서 얼마쯤 가는데, 그 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리면서 ㉤뇌성벽력을 하더니 말야. 근데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나면,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는 거를 인지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가분자기 뇌성

벽력을 하면서 그 벼락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인지 뒤를 돌아봤단 말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돼서.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구 말았다는 게야. 개두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두 불타산 아래서 인지 얼마 내려오다가서 그 비속하니 인지 거기 사람들은 이것이 인지 머느리가 화석된 게라고 인지 하는 바위가 있는데, 역시 사람 모양하고, 뭐 머리에 뭐 인 거 같은 거 하고, 그 아래 개 모양 같은, 그런 화석이 상계두 있단 말야. 한테 그 때 그 이 벼락을 치면서 장재 침지네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뗏백 길이 되는 지 모르는 이제 큰 소가 됐단 말야. - <용소와 머느리바위> -

61. 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② 불필요한 보충 설명적 표현은 과감히 생략하고 있다.
③ 제보자의 구술을 그대로 채록하여 구어체로 되어 있다.
④ 화자의 생생한 사투리가 그대로 기록되어 현장감이 두드러진다.
⑤ 말을 부드럽게 이어가기 위한 채움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62. ㉠ ~ ㉤의 상징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 : 심판자이자 구원자 ㉡ : 하늘의 징벌
③ ㉢ : 생계수단 ④ ㉣ : 하찮으나 소중한 존재
⑤ ㉤ : 초월적 세계

63. 이야기의 내용을 신문기사로 만들 때, <보기> ㉠ ~ ㉤의 내용 구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표제 :	인색함이 한 가족의 참화를 불러들여
부제 :	용소와 머느리 바위에 얽힌 전설
전문	·언제 (㉠) ·누가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받았단) ·왜 (㉤)

- ① ㉠ : 옛날 옛적에 ② ㉡ : 장재 침지와 머느리가
③ ㉢ : 지금의 용소자리에서 ④ ㉣ : 재앙을
⑤ ㉤ : 장재 침지가 금기를 어겼기 때문에

64. 장재 침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들려 줄 노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매암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니,
산채(山菜)를 맵디는가 박주(薄酒)를 쓰디는가.
우리는 초야(草野)에 못쳐서니 맵고 쓴 줄 몰라라.
② 뉘라서 가마귀를 검고 흉타 하듯던고
반포효은(反哺孝恩)이 그 아니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허하노라.

- ③ 공명이 그 무엇고 현신작 버스니로다
전월에 도라오니 미륵이 벗이로다.
백년을 이리 지냄도 역군은(赤君恩)이로다.
- ④ 청산은 어찌하며 만고(萬古)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낯지 아니난고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 ⑤ 공명(功名)을 즐겨마라 영욕(榮辱)이 반(半)이로다.
부귀(富貴)를 탐치 마라 위기를 났느니라.
우리는 일신이 한가커니 두려운 일 없세라.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소는 장연읍에서 한 이십 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예 장연읍에서 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몽금포타령이 있는 데거든.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나 할 거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재 침지네 집터자리라 그래. 장재 침지네 집터자리인데, 거기서 그 영감이 수천 석 하는 부자루 아주 잘 살구 인지 거기다 좋은 집을 짓구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깍쟁이가 돼서, 인지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두 주지 않구,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래서 거기 사람들이 말하자면, ‘돼지,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래네.

그래서 응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을 와두 당최 주질 않구, 또 대개 중들이 인지 그 시주를 하러 와두 도무지 주지를 않구,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감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인지 그 용, 용소 있는 데서 한 이십 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거기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구서, 우정 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설람,

“이놈, 너이 중놈들이란 것은 불농불사하구, 땡기면서 얻어만 먹구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루 인지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구.”

소리를 질러두 그대루 인지 그 중이 이제 가지를 앓구삼날 독경을 하구 있으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대개 삼이라는 게 있지마는 옛날에는 저 그것을 뭐이라구 하나, 부삽이라구 하나, 인지 그거 있는데 그걸루 두엄더미에서 쇠통을 퍼 가구주삼낭,

“우리 집에 쌀은 줄 꺼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구삼낭 바람에다가 쇠통을 엮단 말야. 그래두 그 중은 조금두 낫색두 변하지 않구서, 거저 ‘나무아미타불’ 만 부르다가 그 쇠통을 걸머진 채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장재 침지의 며느리가 인제 쌀을 씻구 있다가, 그 광경을 보구서, 그 중 보구삼낭 얘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天性)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구.”

그러면서 쌀, 씻든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삼낭, 그 바람에다 여쭙단 말야. 그러니까 그 중이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감 집에 인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어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구서 빨리 나와삼낭, 저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질하라구.”

그랬단 말야.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방 안에 자기 아들을, 뉘어서 재우든, 아이를 들쳐업구, 또 그 여자가 인지 명지를 짜던 그 명지 도토마리를 꿰어삼낭을 이구 나오다가, 그 또 자기네 집에서 개를, 아주 오마 잘 거시기 하던 모냥이야.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 가지구서 나와삼낭, 그 불타산을 향해서 달음박질루 가는데, 명지 도토마리, 개, 어린애, 어린애를 업구 명지 도토마리를 이구, 개를 불러 가지삼구나를 인지 그 불타산을 향해서 얼마쯤 가는데, 그 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가분자기 흐리면서 뇌성벽력을 하더니 말야. 근데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나면,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는 거를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가분자기 뇌성벽력을 하면서 그 벼락 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인지 뒤를 돌아봤단 말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돼서, 그 사람이 그 만 화석이 되구 말았다는 게야. 개두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두 불타산 아래서 인지 얼마 내려오다가서 그 비속하니 거기 사람들은 이것이 인지 으 며느리가 화석된 개라고 인지 하는 바위가 있는데,

역시 사람 모양하고, 인지 뭐 머리에 뭐 인 거 같은 거 하고, 그 아래 개 모양 같은, 그런 화석이 상게두 있단 말야. 한테 그때 그 이 벼락을 치면서 장재 침지네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몇백 길이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소가 됐단 말야.

65. 글을 읽고 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착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가 아닐까?
② 자신의 악행으로 벌을 받은 장재 침지의 행동은 인과응보로서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
③ 소문만을 듣고 장재 침지를 벌하기 위해 일부러 시주를 부탁하는 도승의 행위는 신중하지 않은 일 같아.
④ 타인에게 인색한 장재 침지의 모습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 같아.
⑤ 금기를 어김으로써 화석이 된 며느리의 모습을 통해,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번민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아.

66. <보기>는 이 글을 재구성하여 말한 것이다. 접속어나 지시어 사용이 바르지 않은 것은?

< >

장연읍에서 몽금포로 가는 길옆에 용소라는 곳이 있어.

- ㉠ 그 용소는 원래 장재 침지네 집터자리였지.
㉡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침지 영감은 부자이면서도 아주 구두쇠 같은 사람이었어.
㉢ 그런데 하루는 그 영감의 소문을 듣고 근처 불타산에 있는 스님이 시주를 해달라고 그 영감을 찾아갔지.
㉣ 그래서 영감은 시주 온 스님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쇠통을 퍼 주었어.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그 때 우물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시아버지 대신 씻고 있던 쌀을 스님에게 주게 돼.

- ① ㉠ ② ㉡ ③ ㉢
④ ㉣ ⑤ ㉤

67. 글의 구조를 <보기>와 같이 분석할 때, 이와 동일한 내용 조직 방법이 사용된 것은?

<보기>

- 장재 침지의 악행 → 집터가 용소로 변함
- 며느리의 선행 → 재앙을 피할 방법을 들음
- 며느리가 금기를 어김 → 화석으로 변함

- ① 철이는 오전 7시에 눈을 떴다. 오전 8시에 그는 봄비는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다. 드디어 회사 도착,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오전 10시, 그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무실을 나섰다.
- ② 인사동의 한 화랑에 들렀다. 화랑의 입구 벽면엔 포말 같은 하얀 그림이 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첫 번째 시야에 들어온 그림에는 ‘눈’이라는 주제의 뜻말이 붙어 있다. 하얀 눈 위로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그림 속 한 쪽에서는 초가지붕의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그 옆의 그림은 동양화이다.
- ③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며, 앞으로도 계속 출산율의 하락이 예상된다고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출산을 하는 개인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출산율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④ 언니는 성격이 차분하여 매사 신중하게 처신한다. 여가 시간에는 늘 마루에 앉아 수놓기를 즐긴다. 그래서 우리 집을 드나드는 동네 사람마다 언니가 옛날 색시 같다는 말을 한결같이 한다.
- 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는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이 많이 있다. 이것은 우리말과 영어, 일본어의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원래 우리말에는 없었던 생소 한 어법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용소는 장연읍에서 한 이십 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장연읍에서 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몽금포타령이 있는 데거든.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나 할 꺼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나)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재 침지네 집터자리라 그래. 장재 침지네 집터자리네, 거게서 그 영감이 수천 석 하는 부자루 아주 잘 살구 거기다 좋은 집을 짓구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깎쟁이가 돼서,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두 주지 않구,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래서 거기 사람들이 말하자면, ‘돼지,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라네.

(다)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을 와두 당최 주질 않구, 또 대개 중들이 인지 그 시주를 하러 와두 도무지 주지를 않구,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감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인지 그 용소 있는 데서 한 이십 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거게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구서, 우정 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서,

“이놈, 너이 중놈들이란 것은 불농불사하구, 땡기면서 얻어만 먹구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루 인지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구.”

(라) 소리를 질러두 그대루 그 중이 이제 가지를 앓구섬날 독경을 하구 있으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대개 삼이라는 게 있지마는 옛날에는 저 그것을 뛰이라구 하나, 부삽이라구 하나, 인지 그거 있는데 그걸루 두엄더미에서 쇠통을 퍼 가주구는,

“우리 집에 쌀은 줄 꺼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구서는 바람에다가 쇠통을 열단 말야.

(마) 그대루 그 중은 조금두 낫색두 변하지 않구서, 거저 ‘나무 아미타불’ 만 부르다가 그 쇠통을 걸머진 채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장재 침지의 며느리가 인지 쌀을 씻구 있다가, 그 광경을 보구서, 그 중 보구서는 애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구.”

그러면서 쌀, 씻든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섬냥, 그 바람에다 여쨌단 말야.

68. 이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 ① 용소에 얽힌 이야기는 요즘의 이야기이다.
② 시아버지가 도승에게 쇠통을 준 것은 쌀이 없어서였다.
③ 며느리는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도승에게 쌀을 주었다.
④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천성이 고약함을 잘 알고 있었다.
⑤ 도승은 우연히 장자의 집에 들렀다가 봉변을 당하였다.

69. (다) ~ (마)에 사용된 내용 조직 방법은?

- ① 시간적 조직 방법 ② 공간적 조직 방법
③ 통일적 조직 방법 ④ 주제별 조직 방법
⑤ 문제 해결식 조직 방법

70. 이 글의 특징을 바르게 말한 것은?

- ① 사투리와 군소리 등 구연자의 언어 습관이 드러난다.
② 이와 같은 종류의 이야기는 항상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
③ 이 이야기가 전설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몽금포 타령이다.
④ 이러한 이야기는 신성성을 중시하며, 주로 민족적인 범위에서 계승된다.
⑤ 이 이야기 속에서 장재 침지는 초월적, 절대적 진리와 세속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71. 다음 중 이 글을 전설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①	구체적인 배경	장연읍 용소
②	개별적인 증거물	용소, 며느리
③	교훈적인 내용	탐욕과 경솔함에 대한 징계
④	주인공	비정상적 출생과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영웅
⑤	전승자의 태도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고 있음

72. 이 글에 나타난 ‘도승’의 상징성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낙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존재이다.
- ② 세속적이며 본능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 ③ 초월적 세계의 절대적인 질서를 상징하는 존재이다.
- ④ 자연의 질서를 알고 풍류를 즐기는 존재이다.
- ⑤ 인간관계를 매우 소중히 생각하는 존재이다.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용소는 장연읍에서 한 이십 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예 장연읍에서 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몽금포타령이 있는 데거든.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재 침지네 집터자리라 그래. 장재 침지네 집터 자리네, 거에서 그 영감이 수천 석 하는 부자루 아주 잘 살구 거기다 좋은 집을 짓구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깍쟁이가 돼서, 인지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두 주지 않구,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라서 거기 사람들은 인지 말하자면, ‘돼지,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라네.

(나) “이놈, 너이 중놈들이란 것은 불농불사하구, 땡기면서 얻어만 먹구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루 인지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구.”

소리를 질러두 그대루 그 중이 이제 가지를 앓구섬날 독경을 하구 있으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인지 대개 삼이라는 게 있지마는 옛날에는 저 그것을 뭐이라구 하나, 부, 부삽이라구 하나, 인지 그거 있는데 그걸루 두엿더미에섬날 쇠팅을 퍼 가주구섬낭,

“우리 집에 쌀은 줄 꺼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다)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구서, 그 중 보구섬낭 얘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이 교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구.”

그러면서 쌀, 쫓은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섬낭, 그 바랑에다 여 쫓단 말야. 그러니까 그 중이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감 집에 인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루 들어가서, 평소예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어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구서 빨리 나와섬낭, 저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질하라구.”

그랬단 말야.

(라)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는 거를 인지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분자기 뇌성벽력을 하면서 그 벼락 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인지 뒤를 돌아봤단 말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돼서, 그 사람이 그 만 화석이 되구 말았다는 게야. <중략> 한테 그 때 그 이 벼락을 치면서 장재 침지네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 만 거기에 몇백 길이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소가 됐단 말야.

- 김용규 구술, <용소(龍沼)와 며느리바위>

73. (가) ~ (라)에 적용된 내용 조직 방법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옷에 얼룩이 묻었을 때는 숨에 알코올을 조금 묻혀 두드리듯 닦아낸 후 미지근한 물로 세탁을 하면 된다.
- ②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이 매우 혼잡해진다. 출근 시간에는 외각에서 도심 방향으로, 퇴근 시간에는 반대로 차량이 일제히 이동하기 때문이다.
- ③ 광화문 네거리 지하도를 나와 경복궁 쪽으로 걷다 보면 작은 서점이 하나 보인다. 그 서점 옆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면 바로 내가 자주 찾는 작은 찻집이 나온다.
- ④ 동생의 방 왼쪽 벽에는 책꽂이가 있는데 그 중 위에서 두 번째 칸에는 동생이 좋아하는 만화책이 한가득 꽂혀있다. 그 아래 칸에는 내가 어릴 적에 즐겨보던 동화책이 있는데 요즘은 동생이 즐겨보고 있다.
- ⑤ 안양의 상징물은 개나리, 은행나무, 독수리이다. 번식과 성장이 빠른 개나리는 안양시민의 저력을, 병충해에 강하고 열매를 잘 맺는 은행나무는 안양시의 번영을, 드높은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독수리는 안양시민의 기상을 의미한다.

74. <보기>는 (가) ~ (라)를 재구성하여 쓴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접속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기>

- 조금 떨어져 있는 몽금포로 가는 길옆에 용소라는 곳이 있어.
- 그 용소는 원래 장재 침지네 집터 자리였지.
-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침지 영감은 부자면서도 아주 구두쇠 같은 사람이었지
- () 하루는 그 영감의 소문을 듣고 근처 불타산에 있는 스님이 그 영감을 찾아갔지
- () 영감은 시주 온 스님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쇠팅을 퍼주었지.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우물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시아버지 대신 씻고 있던 쌀을 스님에게 주었지.
- () 스님은 며느리에게 이 집에 큰 재앙이 닥칠테니 빨리 몸을 피하라고 얘기해 주었지.
- 그 말을 듣는 즉시 아기를 업고 머리에는 베 짜는 기계를 이고 옆에 있는 개를 데리고 산으로 달아났지
- 그 때 갑자기 큰 벼락 치는 소리가 들리지 뭐야.
- 그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화석이 되고 말았지.
- () 스님이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
- 그리고 벼락이 치던 바로 그 순간에 그 영감이 살던 곳은 큰 소가 되었는데.
- () 그곳이 바로 지금의 용소가 된 거야.

- ① 그런데 - 그랬더니 - 그러자 - 왜냐하면 - 그래서
- ② 그런데 - 왜냐하면 - 그러자 - 그러나 - 그랬더니
- ③ 그런데 - 그러자 - 그래서 - 왜냐하면 - 그런데
- ④ 그리고 - 그랬더니 - 그런데 - 그래서 - 왜냐하면
- ⑤ 그리고 - 그런데 - 그러자 - 그러니까 - 그래서

75. () ~ (라)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비문법적인 문장이 눈에 띈다.
- ② 동일한 말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 ③ 구연자의 언어습관으로 나타난 불필요한 말이 있다.
- ④ ‘인지’, ‘응’등은 뒤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다.
- ⑤ 일상어와 사투리를 사용하여 사실감과 현장감이 느껴진다.

76. <보기 1>은 ‘아기장수 전설’의 줄거리이다. <보기 1>과 (가) ~ (라)의 공통점을 <보기 2>에서 고르면?

<보기 1>

아주 먼 옛날, 지리산 자락의 외진 마을에 가난한 집에서 겨드랑이에 날개 달린 우투리라는 아기장수가 태어났는데 방안을 날아다니기도 하는 등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를 안 임금의 우투리가 자기에게 대항할까봐 죽이러 오고, 우투리는 쿵으로 갑옷을 만들어 입고 임금과 대항해 싸우다 화살을 맞고 죽는다. 그러나 사실, 우투리는 아주 죽지 않고 바위 속에서 좁쌀과 콩, 팥으로 말과 군사를 만들어 훈련시키고 있었다. 이 때 임금이 바위를 여는 바람에 삼 년에서 딱 하루가 모자라 우투리는 말과 군사와 함께 죽고 만다.

<보기 2>

- ㉠ 구체적인 배경 제시
- ㉡ 영웅적인 인물의 비극적 죽음
- ㉢ 진실하다고 믿고 전승
- ㉣ 증거물이 있는 특정 지역에서 전승
- ㉤ 전문 이야기꾼에 의해 전승
- ㉥ ‘용소’, ‘콩’과 같은 개별적 증거물

- ① ㉠,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77. <보기>는 고전 소설 ‘옹고집전’의 줄거리이다. ㉠ ~ ㉥을 (가) ~ (라)에 있는 인물과 바르게 관련지어 설명한 것은?

<보기>

옹진 고을에 사는 옹고집은 심술 사납고 인색하며 불효한 인간으로서, 거지나 중이 오면 때려서 쫓기 일쑤였다. 이에 도술이 능통한 도사가 ㉠학대사(鶴大師)를 시켜 옹고집을 징계하고 오라 했으나 오히려 매만 맞고 돌아왔다. 화가 난 도사가 지푸라기로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옹고집의 집에 가서 진가(眞假)를 다투게 하였다. 진짜와 가짜를 가리고자 관가에 송사까지 하였으나 ㉢진짜 옹고집이 도리어 저서 집을 쫓겨나고 걸식 끝에 비관 자살하려는 데 ㉣도사에게 구출된다. 도사에게서 받은 부적으로 가짜 옹고집을 다시 초인으로 만든 그는 크게 참화하고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된다.

- ① ㉠ - 악인에게 벌을 주고 참회시키는 도승
- ② ㉡ - 죄 때문에 벌을 받고 돌이 되는 며느리
- ③ ㉢ - 중을 학대하고 인색하게 행동한 장재첨지
- ④ ㉣ - 악인을 용서해주는 초월적, 절대적 존재인 도승
- ⑤ ㉤ - 자기 재산을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장재 첨지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들이 인지 그 시주를 하러 와두 도무지 주지를 앓구,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갸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인지 그 용소 있는 데서 한 이십 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거기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구서, 우정 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서,

“이놈, 너이 중놈들이란 것은 불농불사하구, 땡기면서 얻어만 먹구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루 인지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구.”

<중략>

“우리 집에 쌀은 줄 거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구섬낭 바랑에다가 쇠통을 열단 말야.

그래두 그 중은 조금두 낫색두 변하지 앓구서, 거저 ‘나무아미타불’ 만 부르다가섬나를 그 쇠통을 걸머진 채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장재 첨지의 며느리가 인제 쌀을 씻구 있다가, 그 광경을 보구서, 그 중 보구섬낭 얘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구.”

그러면서 쌀, 씻든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섬낭, 그 바랑에다 여 췌단 말야. 그러니까 그 중이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인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쌀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리 집으루 들어가서, 평소애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어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구서 빨리 나와섬낭, 저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질하라우.”

그랬단 말야.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루 들어가서, 방 안에 자기 아들을, 뉘어서 재우든, 아이를 들쳐업구, 또 그 여자가 인지 명지를 짜던 그 명지 도토마리를 꿰어섬나를 이구 나오다가, 그 또 자기네 집에서 개를 아주 오마 잘 거시기 하던 모냥 이야.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 가지구 나와서는, 그 불타산을 향해서 달음박질루 가는데, 명지 도토마리, 개, 어린애, 어린애를 업구 명지 도토마리를 이구, 개를 불러 가지섬구나를 그 불타산을 향해서 얼마쯤 가는데, 그 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가분자기 흐리면서 뇌성벽력을 하더니 말야. 근데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나면,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는 거를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가분자기 뇌성벽력을 하면서 그 벼락 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뒤를 돌아봤단 말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됐어.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구 말았다는 게야. 개두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두 불타산 아래서 인지 얼마 내려오다가서 그 비속하니 거기 사람들은 이것이 며느리가 화석된 게라고 인지 하는 바위가 있는데, 역시 사람 모양하고, 인지 뭐 머리에 뭐 인 거 같은 거 하고, 그 아래 개 모양 같은, 그런 화석이 상계두 있단 말야. 한데 그때 그 이 벼락을 치면서 장재 침지네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뱃백 길이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소가 됐단 말야.

78.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행동이나 상황이 부연 설명되고 있다.
- ② 사투리의 사용으로 생생한 현장감을 주고 있다.
- ③ 내용 전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군말이 사용되었다.
- ④ 동일한 내용의 반복을 통해 중심 주제를 효과적 전달하고 있다.
- ⑤ 체보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채록하였기 때문에 구어체가 드러난다.

79.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① 구체적인 증거물이 존재한다.
- ② 대체로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 ③ 뚜렷한 시간과 장소가 제시되지 않는다.
- ④ 전승자들은 이 이야기가 신성하다고 생각한다.
- ⑤ 평범한 인간이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이야기가 내용의 중심을 이룬다.

80. 이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순재 : 인색한 장지는 세속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존재로 볼 수 있

어.

- ② 준하 : 며느리에게 주어진 금기는 일종의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해미 : 도승은 세속적인 존재를 구원하는 절대적 힘을 상징하는 셈이지.
- ④ 민용 : 이 글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일우 : 며느리는 본능적 욕망과 절대적 진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로 볼 수 있어.

81. 이 글에 주로 쓰인 내용조직 방법이 사용된 것은?

- ① 문학은 형태에 따라 시, 소설, 희곡, 수필 등으로 나뉜다.
- ② 동학농민 운동은 전라도 고부군의 농민들이 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항거하여 일어났다.
- ③ 전통이란 한 집단이나 겨레의 역사 속에 하나로 이어져 내려오는 정신적인 맥락을 말한다.
- ④ 희곡은 소설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통해 표현되는 문학의 한 분야이며, 일정한 인물과 사건과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과 다를 바가 없다.
- ⑤ 까치는 몸길이가 45센티미터 안팎으로 그 중의 반은 꽂지다. 어깨와 배의 하얀 부분을 빼놓은 다른 부분을 빼놓은 다른 부분은 언뜻 보아 검은 색인데, 각도를 달리하여 보면 날개와 꼬리 깃이 아름다운 청록색을 띤다.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소는 장연읍에서 한 이십 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예 장연읍에서 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몽금포타령이 있는 데거든.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인지 바로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나 할 거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재 침지네 집터자리라 그래. 장재 침지네 집터자리네, 거게서 그 영감이 인지 수천 석 하는 부자루 아주 잘 살구 인지 거기다 좋은 집을 짓구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깽쟁이가 돼서, 인지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두 주지 않구,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라서 거기 사람들이 인지 말하자면, ‘돼지,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라네.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을 와두 당최 주질 않구, 또 대개 중들이 인지 그 시주를 하러 와두 도무지 주지를 않구,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감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인지 그 용, 용소 있는 데서 한 이십 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거게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구서, 우정 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설람,

“이놈, 너이 중놈들이란 것은 불농불사하구, 땀기면서 얻어만 먹구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루 인지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구.”

소리를 질러두 그대루 인지 그 중이 이제 가지를 앓구섬날 독경을 하구 있으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대개 샅이라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저 그것을 뭐이라구 하나, 부, 부삽이라구 하나, 인지 그 거 있는데 그걸루 두엄더미에섬낭 쇠통을 퍼 가주구섬낭,

“우리 집에 쌀은 줄 거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하구섬낭 바랑에다가 쇠통을 열단 말야. 그래두 그 중은 조금두 낫 색두 변하지 았구서, 거저 ‘나무아미타불’ 만 부르다가섬나를 그 쇠통을 걸머진 채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장재 침지의 머느리가 인제 쌀을 씻구 있다가, 그 광경을 보구서, 그 중 보구섬낭 얘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天性)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구.”

그러면서 쌀, 씻든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섬낭, 그 바랑에다 여 뒀단 말야. 그러니까 그 중이 머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감 집에 인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구서 빨리 나와섬낭, 저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칠하라우.”

그랬단 말야. 그러니까 그 머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방 안에 자기 아들을, 뉘어서 채우든, 아이를 들쳐 업구, 또 그 여자가 인 지 명지를 찢단 그 명지 도토마리를 꿰어섬나를 이구 나오다가, 그 또 자기네 집에서 개를, 아주 오마 잘 거시기 하던 모냥이야.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 가지구서 나와섬낭, 그 불타산을 향해서 달음박질루 가는데, 명주 도토마리, 개, 어린애, 어린애를 업구 명주 도토마리를 이구, 개를 불러 가지섬나를 인지 그 불타산을 향해서 얼마쯤 가는데, 그 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가분자기 흐리면서 뇌성벽력을 하드니 말야. 근데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나면,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는 거를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가분자기 뇌성벽력을 하면서 그 벼락 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뒤를 돌아봤단 말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두 불타산 아래서 인지 얼마 내려오다가 그 비속하니 거기 사람들은 이것이 인지 으 머느리가 화석된 게라고 인지 하는 바위가 있는데, 역시 인지 사람 모양하고, 인지 뭐 머리에 뭐 인 거 같은 거 하고, 그 아래 개 모양 같은, 그런 화석이 상게두 있단 말야. 한테 그 때 그 이 벼락을 치면서 장재 침지네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몇백 길이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소가 뒀단 말야. 한테 그 소가 어느만큼 넓으나 하면, 여기 어린이 놀이터보담두 더 넓은데, 이 거 고만 두 배쯤 되는 품인데 그 소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물 나오는 소리가 쿵쿵쿵쿵쿵 하면서 그 곁에 가면 이제 지반이 울렁단 말야, 이리 이리 너무 물이 많이 나와서 그래 갖고, 그 물 나오는, 그 물을 가지구서 에 오마 몇만 석인지 되는,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에 수천 정보에 그 평야에, 눈에 물을 그 인지 소에서 나오는 물 가지구서 대는데, 그 물은 아무리 비가 와두 는 뱀이 없구, 에 아무리 인지 가물어두 주는 뱀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깊으나 불라구 명지실을 갖다가, 돌을 넣어섬낭 하니까 명지실 뱀을 넣어도 도무지 끝을 몰론다는, 그만침 깊은 소가 뒀단 말야.

82. 일반적 특징을 먼저 살펴본 후, 이를 위 글에서 확인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 일반적 특징> → <용소와 머느리 바위>

- ㉠ 실제 증거물이 존재한다. → 용소와 머느리바위가 있다.
- ㉡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 다른 전설과 달리 전문적인 이야기꾼이 직접 구연하고 있어 흥미를 더해준다.
- ㉢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제시되어 있다. → 위 글에서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 전설임을 확실히 알게 된다.
- ㉣ 전설은 인간의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위 글에서도 장재 침지

와 그 머느리의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 악행을 저지른 장재 영감이 천벌을 받는 등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준다.

- ① ㉠, ㉡, ㉢ ② ㉠, ㉢, ㉣ ③ ㉠, ㉡, ㉣, ㉤
- ④ ㉠, ㉢, ㉣, ㉤ ⑤ ㉠, ㉡, ㉢, ㉣, ㉤

83. 다음 <보기>는 어느 학생이 위 글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메모한 것이다. 바르게 정리한 것은?

<보기>

- ① 등장인물의 상징적 의미
 - 도승 : 초월적 존재
 - 머느리 : 세속적 욕망의 존재
 - 장재영감 : 세속적 욕망의 존재
- ② 내용 조직 방법

위 이야기는 원래 한 구두설 영감의 집터가 왜 지금의 용소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에 얽힌 사연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인과적 조직방법을 따르고 있다. 사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전설의 내용은 전설의 공간적 배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방법인 공간적 조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③ 기사문의 표제와 부제로 나타내 보기
 - 표제 : 신문기사의 제목 - 인색함이 한 가족의 참화를 불러들여
 - 부제 : 내용을 한정하여 표현 - 용소와 머느리 바위에 얽힌 전설
- ④ 위 글을 육하원칙에 맞게 기사문 개요 작성하기
 - 누가 : 장재침지영감과 머느리가
 - 언제 : 옛날 옛적에
 - 어디서 : 장연 읍에서
 - 무엇을 : 재앙과 구원을
 - 어떻게 : 받았다. 그리하여 장재 침지의 집터는 용소가 되고 머느리는 화석이 되었다.
 - 왜 : 장재침지는 시주를 하지 않고 인색하게 굴었고 머느리는 금기를 어겼기 때문에
- ⑤ 위 글의 내용을 처음, 중간, 끝의 3단계로 간략하게 정리하기
 - 처음 : 전설의 증거물의 위치, 전설의 내용 구체적 언급
 - 중간 : 전설의 내용 개괄적 제시
 - 끝 : 증거물 소개 및 부연 설명

84. 다음 <보기>의 글을 위 글과 관련하여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보기>

- (가)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느님의 분노를 샀을 때, 아브라함은 의인까지 멸망될까 두려워 도시를 위해 애걸한다. 하느님은 50명의 의인을 찾으면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며 두 천사와 같이 보낸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롯의 신심만을 확인한다. 이에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소돔에서 빨리 도망치라 알린다.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한다. 유황불에 도시가 대참사로 멸하는 순간, 롯의 가족은 도망하지만, 유혹에 못 이겨 뒤를 돌아본 그의 아내는 그만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만다.
- (나) 옛날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지금의 미제지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욕심이 많고 포악한 사람이었다. 하루는 스님이 와 시주를 권하자 그는 심술궂게 시주 대신 소똥을 잔뜩 자루에 담아 주었다. 때마침 이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보던 그 부인이 몰래 스님을 불러 쌀을 주면서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스님은 그의 부인에게 부처님의 심부름으로 남편을 벌하기 위해 왔다고 하고 내일 아침 그 집을 피해 뒷산으로 달아나되 무슨 소리가 나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 이튿날 부인은 어린아이를 업고 뒷산으로 올라가던 도중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나므로 금기를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조금 전까지도 있었던 집은 간 곳이 없고 그 곳에 물이 괴어 있었다. 부인이 놀란 나머지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어린아이와 함께 돌로 변하고 말았다, 이후로 큰 부잣집은 큰 못이 되어 버렸다.

- ① (가)의 아브라함은 위 글의 도승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가)로 보아 인간의 선악에 따른 권선징악 등의 가르침은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 ③ 위 글과 (나)의 글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전설 유형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위 글과 (나)의 글에서 악행을 저지른 장소가 모두 물로 변하고 만다는 것은 단순히 징벌의 의미를 넘어 악행을 물로 정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위 글과 <보기>의 글을 모두 살펴볼 때 인간이 선행으로 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85. <보기>를 고려하여 위 글의 내용을 재구성해 본 것이다. 가장 적절하게 구성된 것은?

<보기>

일관성 : 담화내의 문장과 문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지시어나 접속어 등을 사용하여 유기적인 관계로 조직할 수 있다.

장면 읍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몽금포로 가는 길옆에 용소라는 곳이 있어. 그 용소는 원래 장재 찻지네 집터 자리였지. 왜 그렇게 되었나 하면, 찻지 영감은 부자면서도 아주 구두쇠 같은 사람이었지

- ① 그러나 하루는 그 영감의 소문을 듣고 근처 불타산에 있는 스님이 그 영감을 찾아갔지. 시주를 받으러
- ② 그리고 영감은 시주 온 스님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쇠뿔을 퍼주었지. 그 때 우물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시아버지 대신 씻고 있던 쌀을 스님에게 주었지.
- ③ 그런데 스님은 며느리에게 이 집에 큰 재앙이 닥칠 테니 빨리 몸을 피하라고 얘기해 주었지. 그 말을 듣는 즉시 아기를 업고 머리에는 베 짜는 기계를 이고 옆에 있는 개를 데리고 산으로 달아났지.
- ④ 그런데 그 때 갑자기 큰 벼락 치는 소리가 들리지 뭐야. 그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화석이 되고 말았지.
- ⑤ 그래서 스님이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 그리고 벼락이 치던 바로 그 순간에 그 영감이 살던 곳은 큰 소가 되었다. 그래서 그 곳이 바로 지금의 용소가 된 거야.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소는 장연읍에서 한 이십 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애 장연읍에서 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몽금포타령이 있는 데거든.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나 할 거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재 찻지네 집터자리라 그래. 장재 찻지네 집터자리인데, 거기서 그 영감이 인지 수천 석 하는 부자루 아주 잘 살구 인지 거기다 좋은 집을 짓구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깡쟁이가 돼서, 인지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두 주지 않구,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라서 거기 사람들이 인지 말하자면, ‘돼지,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라네. 그래서

응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을 와두 당최 주질 않구, 또 대개 중들이 인지 그 시주를 하러 와두 도무지 주지를 않구,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감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인지 그 용, 용소 있는 데서 한 이십 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거기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구서, 우정 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인지 시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설 람,

“이놈, 너이 중놈들이란 것은 불농불사하구, 땡기면서 얻어만 먹구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루 인지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구.”

소리를 질러두 그대루 인지 그 중이 이제 가지를 앓구섬날 독경을 하구 있으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인지 대개 삽이라는 게 있지마는 옛날에는 저 그것을 뵈이라구 하나, 부, 부삽이라구 하나, 인지 그거 있는데 그걸루 두엄더미에섬날 쇠뿔을 퍼 가주구섬날,

“우리 집에 쌀은 줄 꺼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구섬날 바랑에다가 쇠뿔을 열단 말야.

그래두 그 중은 조금두 낫색두 변하지 않구서, 거저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다가섬날 그 쇠뿔을 걸머진 채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장재 찻지의 며느리가 이제 쌀을 씻구 있다가, 그 광경을 보구서, 그 중 보구섬날 얘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天性)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구.”

그러면서 쌀, 씻든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섬날, 그 바랑에다 여쭈단 말야. 그러니까 그 중이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이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평소애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어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구서 빨리 나와섬날, 저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질 하라구.”

그랬단 말야.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방안에 자기 아들들, 뉘어서 재우든, 아이를 들쳐업구, 또 그 여자가 인지 명지를 짜던 그 명지 도토마리를 꿰어섬날 이구 나오다가, 그 또 자기네 집에서 그 개를, 아주 오마 잘 거시기 하던 모냥이야.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 가지구서 나와섬날, 그 불타산을 향해서 달음박질루 가는데, 명지 도토마리, 개, 어린애, 어린애를 업구 명주 도토마리를 이구, 개를 불러 가지섬구나를 인지 그 불타산을 향해서 얼마쯤 가는데, 그 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가분자기 흐리면서 뇌성벽력을 하느니 말야. 근데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나면,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를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가분자기 뇌성벽력을 하면서 그 벼락 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뒤를 돌아봤단 말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돼서,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구 말았다는 게야. 개두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두 불타산 아래서 인지 얼마 내려오다가서 그 비속하니 인지 거기 사람들은 이것이 인지 으 며느리가 화석된 게라고 인지 하는 바위가 있는데, 역시 인지 사람 모양하고, 인지 뭐 머리에 뭐 인 거 같은 거 하고, 그 아래 개 모양 같은, 그런 화석이 상계두 있단 말야. 한테 그 때 그 이 벼락을 치면서 장재 찻지네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애 뿔뿔이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소가 됐단 말야. 한테 그 소가 어느만큼 뿔으나 하면, 여기 어린애 놀이터보담두 더 넓은데, 이거 고만 두 배쯤 되는 품인데 그 소애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물 나오는 소리가 쿵쿵쿵쿵쿵 하면서 그 곁애 가면 이제 지반이 울린단 말야, 이리 이리 너무 물이 많이 나와서 그래 갖고, 그 물 나오는, 그 물을 가지구서 애 뿔뿔 석인지 되는,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에 수천 정보에 그 인지 평야에, 눈에 물을 그 인지 소에서 나오는 물 가지구서 대는데, 그 물은 에 아무리 비가 와두 느는 뱀이 없구, 에 아무리 인지 가물어두 주는 뱀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깊으 나 볼라구 명지실을 갖다가, 돌을 넣어섬낭 하나까 명지실 뿔을 넣어 도 도무지 끝을 몰른다는, 그만침 깊은 소가 됐단 말야.

86. <보기>와 비교해 볼 때 위와 같은 글이 지닌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그러므로 우리 민족으로서 하여야 할 최고의 임무는 첫째로, 남의 절제(節制)도 아니 받고 남에게 의뢰(依賴)도 아니 하는, 완전한 자주 독립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민족의 생활을 보장 할 수 없을 뿐 더러, 우리 민족의 정신력(精神力)을 자유로 발휘(發揮)하여 빛나는 문화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전한 자주 독립의 나라를 세운 뒤에는, 둘째로 이 지구상의 인류가 진정한 평화(平和)와 복락(福樂)을 누릴 수 있는 사상을 낳아 그것을 먼저 우리나라에 실현하는 것이다.

- ① 빨강이 : 말이 지닌 특성상 사이사이 중요한 정보나 기타 정보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 ② 파랑이 : 같은 말이 반복되고 군더더기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어.
- ③ 노랑이 : 구연을 그대로 채록해서 그런지 실제로 현장에서 듣는 느낌이 들어.
- ④ 주황이 : 사투리를 생생하게 사용하여 훨씬 정감 있게 들을 수 있어.
- ⑤ 초록이 : 구비되는 특성 때문인지 완결되지 못한 발화나 어색한 표현이 종종 눈에 띄네.

87. 다음 <보기>와 위 내력담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조선이 건국되고 태조 이성계는 국사 무학대사를 보내 전국 여러 곳에서 나라의 도움을 물색하게 되었다. 전국 방방곡곡을 물색하던 무학대사는 남경(지금의 서울지방의 고려시대 이름) 부근을 지나던 중 한 고승을 만나는데 무학대사는 한 눈에 이 승려가 비범하지 않다는 걸 알고 감히 조언을 구했다. 고승은 무학대사를 크게 꾸짖으며 “지금 네가 누워있는 곳만큼 명당이 또 어디 있겠는가! 아둔한 후배여”라고 하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무학대사는 꿈을 꾸었고 꿈을 추슬러 보니 꿈에 본 고승은 다름 아닌 고려 태조 왕건의 국사 도선 대사였던 것이다. 그리곤 부근 인왕산에 올라 가만히 자신이 지쳐 잠을 자던 곳의 지세를 살피니 과연 천하 명당이었다. 때가 겨울에 다른 곳은 눈이 쌓여 있는데 오직 그 곳만이 벌에 녹아 있던 것이다. 이에 무학대사가 말했던 눈이 녹은 가장자리를 따라 울타리를 쌓은 것이었다. 이숙이 눈 울타리 즉, 설울(서울)이 된 것이다.

- ① 두 이야기 모두 흥미 위주의 이야기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 ② 위 내력담은 지명의 유래담이고, <보기>는 흥미위주의 이야기에 속한다.
- ③ 위 이야기 모두 진실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물이나 장소가 있다.
- ④ 두 이야기 모두 신에 관한 내력담으로서 신성성과 신비로움이 느껴진다.
- ⑤ 위 이야기는 전설이라 할 수 있고, <보기>는 신성 성을 느끼게 하는 신화라 할 수 있다.

88. 위 글의 밑줄 친 ㉠ ~ ㉣ 중 다음 <보기>의 ‘호랑이’와 가장 잘

통하는 것은?

<보기>

‘통과의례’란 문학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주인공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며, 이를 통과하면 더 좋은 결과가 찾아오도록 되어 있는 장치이다. 예를 들어 ‘곰’이 썩과 마늘을 먹으며 동굴에서 참아낸 결과 원하던 바대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점에서 곰의 행위는 통과례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호랑이’는 썩과 마늘을 먹으면서 햇빛을 보지 말라는 금기를 어겨 결국 사람이 될 수 없었다.

- ① ㉠ 영감 ② ㉡ 도승 ③ ㉢ 아들
- ④ ㉣ 개 ⑤ ㉤ 여인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재 침치네 집터자리라 그래. 장재 침치네 집터자리네, 거게서 그 영감이 인지 수천 석 하는 부자루 아주 잘 살구 거기다 좋은 집을 짓구서 있었네, 그 영감이 아주 깡쟁이가 돼서, 인지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두 주지 않구,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라서 거기 사람들이 인지 말하자면, ‘돼지,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라네.

(나) 거게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구서, 우정 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설람,

“이놈, 너이 중놈들이란 것은 불농불사하구, 땡기면서 얻어만 먹구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루 인지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구.”

(다)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장재 침치의 며느리가 인제 쌀을 씻구 있다가, 그 광경을 보구서, 그 중 보구섬낭 애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天性)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구.”

그러면서 쌀, 씻든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섬낭, 그 바가지에다 여쭙단 말야. 그러니까 그 중이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인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루 들어가서, 평소애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어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구서 빨리 나와섬낭, 저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질하라구.”

그랬단 말야.

(라)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는 거를 인지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가분 자기 뇌성벽력을 하면서 그 벼락 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인지 뒤를 돌아봤단 말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돼서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구 말았다는 게야. 개두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두 불타산 아래서 인지 얼마 내려오다가서 그 비속하니 인지 거기 사람들은 이것이 며느리가 화석된 게라고 인지 하는 바위가 있는데, 역시 인지 사람 모양하고, 인지 뭐 머리에 뭐 인 거 같은 거 하고, 그 아래 개 모양 같은, 그런 화석이 상게 두 있단 말야.

(마) 한테 그 때 그 이 벼락을 치면서 장재 침치네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몇백 길이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소가 됐단 말야.

8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① 비문법적인 표현이나 완결되지 않은 발화가 많다.
- ② 전체 구성을 볼 때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③ ‘-았구, -인지’ 등과 같은 문어체적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지시어나 접속어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여 이해하기 쉽다.
- ⑤ 서술자는 이야기의 흥미를 살리려고 해학적인 어조를 구사하고 있다.

90. 밑줄 친 시어 중 ㉠의 상징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 우리가 저와 같아서 /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② 벼는 서로 어우러져 / 기대고 산다. / 햇살 따가워질수록 /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 이성부, <벼>
- ③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 나를 밀어 올려 다오. /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 서정주, <추천사>
- ④ 넓은 벌 동쪽 끝으로 / 옛 이야기 지줄 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 얼룩백이 황소가 / 해설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정지용, <향수>
- ⑤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91. 위 이야기를 들은 청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우: 장재 침지는 우리 고전 소설의 웅고집이나 놀부와 비슷한 인간형이네.
- ② 은경: 맞아. 이 이야기는 악행을 저지른 장재 침지 영감을 통해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계를 준 것이라고 해야겠지?
- ③ 나영: 그러한 장재 침지를 벌하는 징벌자,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도승’이지.
- ④ 해영: 도승은 며느리에게 재앙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초월적 존재이기도 해.
- ⑤ 홍주: 그럼 며느리가 화석이 된 건 권선징악(勸善懲惡)을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겠네.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소는 장연읍에서 한 이십 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장연읍에서 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몽금포타령이 있는 데거든.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꺼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재 침지네 집터자리라 그래. 장재 침지네 집터자리네, 거게서 그 영감이 수천 석 하는 부자루 아주 잘 살구 거기다 좋은 집을 짓구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깽쟁이가 돼서,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두 주지 않구,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라서 거기 사람들이 말하자면, ‘돼지,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라네.

(㉠)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을 와두 당최 주질 않구, 또 대개 중들이 인지 그 시주를 하러 와두 도무지 주지를 않구,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감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인지 그 용소 있는 데서 한 이십 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거게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구서, 우정 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서,

“이놈, 너이 중놈들이란 것은 불놓불사하구, 땀기면서 얻어만 먹구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루 인지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 까 가라구.”

소리를 질러두 그대루 그 중이 이제 가치를 앓구섬날 독경을 하구 있으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대개 삼이라는 게 있지마는 옛날에는 저 그것을 뭐이라구 하나, 부삽이라구 하나, 그거 있는데 그절루 두엄더미에섬날 쇠똥을 퍼가 주구서는,

“우리 집에 쌀은 줄 꺼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구섬날 바람에다가 쇠똥을 열단 말야.

(㉢) 그 중은 조금두 낮색두 변하지 않구서, 거저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다가 그 쇠똥을 걸머진 채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장재 침지의 며느리가 인제 쌀을 씻구 있다가, 그 광경을 보구서, 그 중 보구서는 애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이 교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구.”

(㉣) 쌀, 씻든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섬날, 그 바람에다 여쨌단 말야. 그러니까 그 중이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인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어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구서 빨리 나와섬날, 저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질 하라구.”

그랬단 말야.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방안에 자기 아들을, 뉘어서 재우든, 아이를 들쳐업구, 또 그 여자가 인지 명지를 짜던 그 명지 도토마리를 끊어서 이구 나오다가, 그 또 자기네 집에서 개를,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 가지구서 나와선, 그 불타산을 향해서 달음박질투 가는데, 어린애를 업구 명주 도토마리를 이구, 개를 불러 가지구 그 불타산을 향해서 얼마쯤 가는데, 그 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리면서 뇌성벽력을 하더니 말야. (㉤)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나면,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는 거를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갑자기 뇌성벽력을 하면서 그 벼락 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뒤를 돌아봤단 말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됐어.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구 말았다는 게야. 개두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두 불타산 아래서 얼마 내려오다가서 그 비속하니 거기 사람들은 이것이 며느리가 화석된 게라고 인지 하는 바위가 있는데, 역시 사람 모양하고, 인지 뭐 머리에 뭐 인 거 같은 거 하고, 그 아래 개 모양 같은, 그런 화석이 아직두 있단 말야. 한테 그때 그 이 벼락을 치면서 장재 침지네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몇 백 길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소가 됐단 말야.

92. 위 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당대 민중의 부자에 대한 반감과 한의 정서를 읽을 수 있어.
- ② 오만과 편견에 빠진 사람들에게 올바른 종교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
- ③ ‘용소’와 ‘머느리바위’라는 증거물을 언급하는 점에서 전설에 해당하는 이야기야.
- ④ 점점 각박해져가는 세상에 나눔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⑤ 금기를 어긴 며느리가 화석이 된 일은 절대적 세계의 심판이 엄중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93. ~ ㉔에 들어갈 접속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 : 그래서 ② ㉒ : 그리고 ③ ㉓ : 그러니까
④ ㉔ : 그랬더니 ⑤ ㉕ : 그러자

94. '도승'이 '장재 침지'를 깨우치고자 들려 줄만한 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추 볼 붉은 굴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 버 벤 그루터기에 게는 어이 내리는고. / 술 익자 채 장사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하리. - 황희 -
② 산수간 바위 아래 떠 풀로 집을 짓노라 하니 / 뜻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 어리석은 시골뜨기의 마음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 윤선도 -
③ 청산(靑山)도 절로절로 녹수(綠水)도 절로절로 / 산(山) 절로 수(水) 절로 산수 간(山水間)에 나도 절로 /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송시열 -
④ 말 없는 청산(靑山)이요, 태(態) 없는 유수(流水)로다. / 값없는 청풍(淸風)이요, 임자 없는 명월(明月)이라 / 이 중(中)에 병(病) 없는 이 몸이 분별(分別) 없이 늙으리라. - 성혼 -
⑤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한(恨) 하노라 / 굶어 죽을진들 고사리라도 뜯어 먹여야 되겠는가. / 비록 산에 자라는 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는가. -성삼문 -

95. 위 글을 신문기사문으로 작성한 것이다, 초등학생을 독자로 하여 다시 쓰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표제	㉑인색한 장자 천벌을 받아
부제	㉒ ()
전문	인색한 장자가 천벌을 받은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00월 00일. 황해도 장연 읍 장자 김 모씨는 시주하러 온 중에게 쌀 대신 쇠똥을 퍼주어 천벌을 받아 자신은 벼락을 맞고, 집터는 큰 연못으로 변해버렸다. 장자 김 모 씨는 본래 인색하여 별명이 '돼지'일 정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이었다. 한편 스님에게 대신 사과하고 쌀 시주를 하였던 며느리마저 스님의 ㉓당부를 어겨 돌로 변하여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장자가 천벌을 받은 것은 ㉔인과응보지만 ㉕착한 사람도 금기를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 ① ㉑ : '깍쟁이'나 '구두쇠'로 바꾸면 이해하기가 더 쉽겠어.
② ㉒ : 발생 장소의 지리적 위치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이 좋겠어.
③ ㉓ : '금기'로 바꿔 내용과 용어에 통일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해.
④ ㉔ : 권선징악(勸善懲惡)이라는 단어를 첨가하여 교훈을 강조하면 어떨까.
⑤ ㉕ : 인과응보(因果應報)의 결말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용소는 장연읍에서 한 이십 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예 장연읍에서 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몽금포타령이 있는 데거든. 그 몽금포가

는 길 옆에 그 인지 바로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거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나)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재 침지네 집터자리라 그 래. 장재 침지네 집터자리네, 거게서 그 영감이 수천 석 하는 부자루 아주 잘 살구 인지 거기다 좋은 집을 짓구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깍쟁이가 돼서, 인지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두 주지 않구,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래서 거기 사람들이 인지 말하자면, '돼지,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래네. 그래서 응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을 와두 당최 주질 않구, 또 대개 중들이 인지 그 시주를 하러 와두 도무지 주지를 않구,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감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인지 그 용, 용소 있는 데서 한 이십 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거게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구서, 우정 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설람,

“이놈, 너이 중놈들이란 것은 불놓불사하구, 땡기면서 얻어만 먹구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루 인지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구.”

소리를 질러두 그대루 인지 그 중이 이제 가지를 앓구섬날 독경을 하구 있으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대개 샅이라는 게 있지마는 옛날에는 저 그것을 똥이라구 하나, 부, 부삽이라구 하나, 인지 그 거 있는데 그걸루 두엿더미에섬날 쇠똥을 퍼 가주구섬나,

“우리 집에 쌀은 줄 꺼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구섬나방 바람에다가 쇠똥을 엇단 말야.

(다) 그대루 그 중은 조금두 낫색두 변하지 않구서, 거저 '나무야미 타불' 만 부르다가섬나를 그 쇠똥을 걸머진 채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장재 침지의 며느리가 인제 쌀을 씻구 있다가, 그 광경을 보구서, 그 중 보구섬나방 얘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天性)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구.”

그러면서 쌀, 씻든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섬나, 그 바람에다 여쭙단 말야. 그러니까 그 중이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㉑집에 인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루 들어가서, 평소예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어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구서 빨리 나와섬나, ㉒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질하라구.” 그랬단 말야.

(라)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루 들어가서, 방 안에 자기 아들을, 뉘어서 채우든, 아이를 들쳐업구, 또 그 여자가 인지 명지를 짜던 그 명지 도토마리를 꿰어섬나를 이구 나오다가, 그 또 자기네 집에서 개를, 아주 오마 잘 거시기 하던 모냥이야.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 가지구서 나와섬나, 그 불타산을 향해서 달음박질루 가는데, 명주 도토마리, 개, 어린애, 어린애를 업구 명주 도토마리를 이구, 개를 불러 가지섬구나를 인지 그 불타산을 향해서 얼마쯤 가는데, 그 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가분자기 흐리면서 뇌성벽력을 하더니 말야. 근데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나면,

“㉓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를 인지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가분자기 뇌성벽력을 하면서 그 벼락 치는 소리가 나니까, ㉔깍쟁 놀래서 인지 뒤를 돌아봤단 말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돼서,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구 말았다는 게야. 개두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 ㉕지금두 불타산 아래서 인지 얼마 내려오다가서 그 비속하니 인지 거기 사람들은 이것이 인지 으 며느리가 화석된 게라고 인지 하는 바위가 있는데, 역시 사람 모양하고, 인지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뭐 머리에 뭐 인 거 같은 거 하고, 그 아래 개 모양 걸은, 그런 화석이 상계두 있던 말야. 한테 그때 그 이 벼락을 치면서 장재 침지네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뿔백 길이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소가 뿔단 말야. 한테 그 소가 어느만큼 넓으냐 하면, 여기 어린이 놀이터보담두 더 넓은데, 이거 고만 두 배쯤 되는 품인데 그 소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물 나오는 소리가 쿵쿵쿵쿵쿵 하면서 그 곁에 가면 이제 지반이 울린단 말야. 이리 이리 너무 물이 많이 나와서 그래 갖구, 그 물 나오는, 그 물을 가지구서 에 오마 뿔만석 인지 되는,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에 수천 정보에 그 인지 평야에, 논에 물을 그 인지 소에서 나오는 물 가지구서 대는데, 그 물은 에 아무리 비가 와두 느는 뱀이 없구, <후략>

96.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방언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현장감이 나타난다.
- ② 주제별 조직 방법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특정 장소의 유래담으로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다.
- ④ 접속어와 군소리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 ⑤ 위 글을 신문 기사로 쓸 경우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야 한다.

97. ㉠ ~ ㉣ 중 <보기>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가) 금기(禁忌)란 어떤 행위나 대상을 신성하다거나 위험하다는 이례적인 구분에 따라 그 행위나 대상의 사용을 금하는 것을 말한다. 무릇 인류 역사상 금기가 없는 사회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개 사회뿐 아니라 과학 기술이 현저하게 진보된 현대사회에서조차도 금기는 엄연히 존재한다.

(나) 예 - 밤에 휘파람을 불지 말라 / 다리를 떨지 말라.
밤에 손톱을 깎지 말라. / 문지방을 밟지 말라.

- ① ㉠ ② ㉡ ③ ㉢ ④ ㉣ ⑤ ㉤

98. 위 글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수 : 도승은 초월적 존재로서 장재 침지를 심판했군.
- ② 철수 : 이 이야기는 용소에 사는 개인이 자의적으로 창작한 것이군.
- ③ 민수 : 며느리의 최후는 전설에서 말하는 금기를 위반해서 생긴 것이군.
- ④ 광수 : 한 개인의 인식함이 한 가족의 참화를 불러온 비극적인 이야기로군.
- ⑤ 대수 :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욕망에 큰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좋겠군.

99. 위 글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라)의 결말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말은?

- ① 왕후장상이 씨가 있다. ② 굴뚝에서 뽕 놓은 족제비 같다.
- ③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밀어낸다.
- ④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재 침지네 집터자리라 그 래. 장재 침지네 집터자리네, 거기서 그 영감이 수천 석 하는 부자루

아주 잘 살구 인지 거기다 좋은 집을 짓구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각쟁이가 돼서, 인지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두 주지 않구,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래서 거기 사람들이 말하자면, ‘㉠돼지,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래네.

(나) 용소 있는 데서 한 이십 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철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철이 있는데, 거기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구서, 우정 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설람,

“이놈, 너이 중놈들이란 것은 불농불사하구, 땡기면서 얻어만 먹구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루 인지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 까 가라구.”

(다) 그래두 그 중은 조금두 낫색두 변하지 않구서, 거저 ‘나무아미타불’ 만 부르다가 그 쇄똥을 걸머진 채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장재 침지의 ㉣며느리가 인제 쌀을 씻구 있다가, 그 광경을 보구서, 그 중 보구섬냥 애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天性)이 교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구.”

그러면서 쌀, 씻든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섬냥, 그 바랑에다 여 뿔단 말야.

(라) 그러니까 그 중이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인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평소애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어 있는지, 두 세 가지만 가지구서 빨리 나와섬냥, 저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칠 하라구.”

그랬단 말야.

(마)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방 안에 자기 아들을, 뉘어서 재우든, 아이를 들쳐업구, 또 그 여자가 인지 명지를 짜던 그 명지 도토마리를 꿰어섬냥을 이구 나오다가, 그 또 자기네 집에서 개를 아주 오마 잘 거시기 하던 모냥이야.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 가지구서 나와섬냥, 그 불타산을 향해서 달음박질루 가는데, 명지 도토마리, 개, 어린애, 어린애를 업구 명지 도토마리를 이구, 개를 불러 가지섬구나를 인지 그 불타산을 향해서 얼마쯤 가는데, 그 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가분자기 흐리면서 뇌성벽력을 하더니 말야.

(바) 근테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나면,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는 거를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가분자기 뇌성벽력을 하면서 그 벼락 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뒤를 돌아봤단 말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돼서,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구 말았다는 게야.

100.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영감의 욕심 많은 성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 영감의 집과 상반되는 초월적 공간이다.
- ③ ㉢ : 불쌍한 며느리를 구원하는 천상적 존재이다.
- ④ ㉣ : 장자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는 선인형 인물이다.
- ⑤ ㉤ : 며느리의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는 소재이다.

101. 위 글을 신문 기사로 재구성할 때,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 ① 전설 따라 삼천리 - 용소와 관련된 비극적 결말
- ② 전설의 현대적 반응 - 잊혀져 가는 우리 옛이야기
- ③ 세상에 이런 일이 - 사람이 돌이 된 신기한 이야기
- ④ 인색함이 한 가족의 참화 불러들여 - 용소와 머느리 바위에 얽힌 전설
- ⑤ 착한 머느리가 돌이 된 안타까운 사연 -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02. 위 글의 주요 내용 조직 방식과 유사한 것은?

- ① 우리는 고려 멸망의 원인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② 지구와 화성은 둘 다 태양계의 행성으로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비슷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한다는 점도 같다.
- ③ 길은 지금 산허리에 걸려 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 ④ 짱구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갔다. 그는 이번 주에 주번이어서 조 회 시간 전에 교실을 정돈하였다. 정돈이 끝날 무렵 다른 아이들이 교 실로 들어 왔다.
- 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노인 복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 일자리 창 출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용소는 장연읍에서 한 이십 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장연읍에서 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몽금포타령이 있는 데거든.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나 할 거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재 침지네 집터자리라 그래.

(나)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인지 그 용소 있는 데서 한 이십 리 가 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거기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거, 우정 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서,

“이놈, 너이 중놈들이란 것은 불농불사하구, 땀기면서 얻어만 먹구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루 인지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구.”

(다) 우물가에서 그 장재 침지의 머느리가 인제 쌀을 씻구 있다가, 그 광경을 보거, 그 중 보거서는 얘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구.”

그러면서 쌀, 씻든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섬냥, 그 바랑에다 여쭙단 말야.

(라) “당신 집에 인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루 들어가서,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어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구서 빨리 나와섬냥, 저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질하라구.”

그랬단 말야. 그러니까 그 머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루 들어가서, 방 안에 자기 아들을, 뉘어서 재우든, 아이를 들쳐업구, 또 그 여자가 인지 명지를 짜던 그 명지 도토마리를 끊어서 이구 나오다가, 그 또 자

기네 집에서 개를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 가지구서 나와서는, 그 불타산을 향해서 달음박질루 가는데, 어린애를 업구 명주 도토마리를 이구, 개를 불러 가지구 그 불타산을 향해서 얼마쯤 가는데, 그 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리면서 뇌성벽력을 하더니 말야.

(마) 근데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냐면,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는 거를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갑자기 뇌성벽력을 하면서 그 벼락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인지 뒤를 돌아봤단 말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돼서.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구 말았다는 게야.

(바) 한데 그 소가 어느 만침 넓으나 하면, 여기 어린이 놀이터보담 두 더 넓은데, 이거 고만 두 배쯤 되는 품인데 그 소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물 나오는 소리가 쿵쿵쿵쿵쿵 하면서 그 곁에 가면 이제 지반이 울린단 말야.

103. 위 글의 내용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① 일관성을 위해 (바)는 없애는 것이 좋다.
- ② 시간적 순서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치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고 있다.
- ④ (가)는 처음, (나), (다), (라)는 중간, (마), (바)는 끝부분에 해당된다.
- ⑤ 적절한 접속어와 지시어를 사용하여 내용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용소는 장연읍에서 한 이십 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에 장연읍에서 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몽금포타령이 있는 데거든. ㉔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인지 바로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나 할 거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나) “우리 집에 쌀은 줄 거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구섬냥 바랑에다가 쇄똥을 열단 말야. (㉕) 그 중은 조금두 낫색두 변하지 않거, 거저 ‘나무야미타불’만 부르다가 그 쇄똥을 걸머진 채 바깥으 루 나오는데,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장재 침지의 머느리가 인제 쌀을 씻구 있다가, 그 광경을 보구섬냥 얘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구.”

(㉖) 쌀, 씻든 ㉗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섬냥, 그 바랑에다 여 쭙단 말야.

그러니까 그 중이 머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감 집에 인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루 들어가서,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어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구서 빨리 나와서는, 저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 질하라구.”

(다) 그랬단 말야. (㉘) 그 머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루 들어가서, 방 안에 자기 아들을, 뉘어서 재우든, 아이를 들쳐업구, 또 그 여자가 인지 명지를 짜던 그 명지 도토마리를 끊어서 이구 나오다가, 그 또 자기네 개를,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 가지구서 나와서는, 그 불타산을 향해서 달음박질루 가는데, ㉙어린애를 업구 명주 도토마리를 이구, 개를 불러 가지구 그 불타산을 향해서 얼마쯤 가는데, 그 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리면서 뇌성벽력을 하더니 말야.

(라) (㉔)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다면,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는 거를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갑자기 뇌성벽력을 하면서 그 벼락 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뒤를 돌아봤단 말야. 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됐어.

(마)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구 말았다는 게야. 개두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두 불타산 아래서 얼마 내려오다가서 그 비속하니 거기 사람들은 이것이 머느리가 화석된 게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역시 사람 모양하고, 뭐 머리에 뭐 인 거 같은 거 하고, 그 아래 개 모양 같은, 그런 화석이 상계두 있단 말야. (㉔) 그때 그 ㉔이 벼락을 치면서 장재 첨지네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몇백 길이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소가 됐단 말야.

104.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내용 조직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용소의 생성 이유를 밝히는 ()과 장자와 머느리 이야기 다룬 설화를 소개하는 시간적 조직방법이다.

- ① 화제의 유형에 따라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긴장감을 고조시킬 필요가 있을 때 적합한 방법
- ③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따라 자료를 배열하여 어떤 주장을 논리 정연하게 전개하는 방법
- ④ 사물의 공간적 질서에 따라 전개하는 방법
- ⑤ 문제에 해당하는 자료를 먼저 배열하고, 해결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뒤에 제시하고 있는 방법

105.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인 증거물이 제시된다.
- ②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승된다.
- ③ 신적인 존재의 일대기를 다룬다.
- ④ 대체로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다.
- ⑤ 지은이는 개인보다 집단인 경우가 많다

106. ㉠ ~ ㉤에 들어갈 접속어가 바르게 사용된 것은?

- ① ㉠ - 그나마 ② ㉡ - 그러면서 ③ ㉢ - 그래도
- ④ ㉣ - 그리고 ⑤ ㉤ - 그러나

107. 밑줄 친 ㉠ ~ ㉤ 중 이야기 전개상 삭제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소는 장연읍에서 한 이십 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장연읍에서 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몽금포타령이 있는 데거든.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꺼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재 첨지

네 집터자리라 그래. 장재 첨지네 집터자리네, 거기서 그 영감이 수천 석 하는 부자루 아주 잘 살구 거기다 좋은 집을 짓구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각쟁이가 돼서,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두 주지 않구,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래서 거기 사람들이 말하자면, ‘돼지,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래네.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을 와두 당최 주질 않구, 또 대개 중들이 인지 그 시주를 하러 와두 도무지 주지를 않구,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감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인지 그 용소 있는 데서 한 이십 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거기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구서, 우정 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서,

“이놈, 너이 중놈들이란 것은 불농불사하구, 땀기면서 얻어만 먹구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루 인지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구.”

소리를 질러두 그대루 그 중이 이제 가치를 앓구섬낭 독정을 하구 있으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대개 삼이라는 게 있지마는 옛날에는 저 그것을 뭐이라구 하나, 부삽이라구 하나, 인지 그거 있는데 그걸루 두엿더미에섬낭 쇠통을 퍼 가주구섬낭,

“우리 집에 쌀은 줄 꺼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구섬낭 바람에다가 쇠통을 었단 말야.

그대루 그 중은 조금두 낮색두 변하지 않구서,

거저 ‘나무아미타불’ 만 부르다가 그 쇠통을 걸머진 채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장재 첨지의 머느리가 인제 쌀을 씻구 있다가, 그 광경을 보구서, 그 중 보구서는 애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天性)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구.”

그러면서 쌀, 씻든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섬낭, 그 바람에다 여쭙단 말야. 그러니까 그 중이 머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인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어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구서 빨리 나와서는, 저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질하라구.”

그랬단 말야. 그러니까 그 머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방안에 자기 아들을, 뉘어서 재우든, 아이를 들쳐업구, 또 그 여자가 인지 명지를 짜던 그 명지 도토마리를 꿰어서 이구 나오다가, 그 또 자기네 집에서 개를,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 가지구서 나와서는, 그 불타산을 향해서 달음박질루 가는데, 어린애를 업구 명주 도토마리를 이구, 개를 불러 가지구 그 불타산을 향해서 얼마쯤 가는데, 그 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리면서 뇌성벽력을 하더니 말야. 근데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다면,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는 거를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갑자기 뇌성벽력을 하면서 그 벼락 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뒤를 돌아봤단 말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돼서,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구 말았다는 게야. 개두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두 불타산 아래서 인지 얼마 내려오다가서 그 비속하니 거기 사람들은 이것이 인지 으 머느리가 화석된 게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역시 사람 모양하고 뭐 머리에 뭐 인 거 같은 거 하고, 그 아래 개 모양 같은, 그런 화석이 상계두 있단 말야. 한테 그때 그 이 벼락을 치면서 장재 첨지네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몇백 길

滿開(만피)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ebs부교재] 장차 못 설화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ebs부교재] 정석가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딩아 돌하 當今(당금)에 계상이다.

딩아 돌하 當今(당금)에 계상이다.

先王聖代(선왕성대)에 노니으와지이다.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눈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눈

㉠ 구은 밤 닛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有德(유덕)흐신 님를 여히으와지이다.

옥(玉)으로 蓮(연)스고즐 사교이다.

옥(玉)으로 蓮(연)스고즐 사교이다.

바희 우희 接主(접주)흐요이다.

그 고지 三同(삼동)이 뛰거시아

그 고지 三同(삼동)이 뛰거시아

有德(유덕)흐신 님 여히으와지이다.

(나)

唐漢書(당한서) 莊老子(장로즈) 韓柳文集(한류문집)

李杜集(니두집) 蘭臺集(난타집) 白樂天集(백락턴집)

毛詩尙書(모시상서) 周易春秋(주역춘추) 周戴禮記(주타례기)

위 註(주)조쳐 내 외음 ㉠ 景(경) 괴 엇더흐니잇고.

葉(엽) 大平廣記(대평광기) 四百餘卷(스빅여권) 大平廣記(대평광기) 四百餘卷(스빅여권)

위 歷覽(력남)스 景(경) 괴 엇더흐니잇고.

<제2장>

唐唐唐(당당당) 唐揪子(당쥬즈) 조협(早莢) 남기

紅(홍)실로 紅(홍)글위 므요이다.

혀고시라 밀오시라 鄭少年(정소년)하.

위 ㉡ 내 가는 디 늙 갈세라.

葉(엽) 削玉纖纖(삭옥섬섬) 雙手(쌍수)스 길헤 削玉纖纖(삭옥섬섬) 雙手(쌍수)스 길헤

위 携手同遊(휴수동유)스 景(경) 괴 엇더흐니잇고.

<제8장>

(다)

구름이 무심(無心)튼 말이 아마도 허랑(虛浪)흐다.

中天(중천)에 써 이셔 任意(임의)로 돈니면서,

㉢ 구틱야 광명(光明)흐 날빛을 싸라가며 답느니

(라)

仙人橋(선인교) 나린 물이 紫霞洞(자하동)에 흐르르니,

半千年(반천 년) 王業(왕업)이 물소리 뿐이로다.

㉣ 아희야, 故國興亡(고국 흥망)을 무려 무엇하리오.

11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를 통해 이 작품이 궁중에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한 연 내에서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한다.
- ③ 마지막 구절마다 반복되는 ‘유덕흐신 님’은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④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절대 임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옥으로 연꽃을 새기는 것’은 임에게 소중한 것을 바치고자 하는 화자의 행위를 드러낸다.

1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면?

- ① ㉠과 같은 화자의 행동은 밤이 열리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과 배치된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② ㉠에는 위에 나열한 책을 모두 읽었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느껴진다.
- ③ ㉡에는 자신의 행동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화자의 부끄러움이 담겨 있다.
- ④ ㉢에는 '구름'의 움직임이 의도적임을 확인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⑤ ㉣에는 '고려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엿보인다.

115. (가)와 (나)에 관련된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한 문장씩 쓰시오.

(가)와 (나)의 형식적 유사점	• ㉠() • ㉡() • 대체로 3·3·4조를 이룬다. • 주로 여음구나 후렴구가 있다.
해당 갈래의 향유 계층과 주된 내용	• 고려가요에는 주로 평민들이 사랑과 이별이나, 삶의 애환을 노래한 작품이 많다. • 경기체가에는 주로 ㉢()

조건. ㉣에는 주된 창작층을 반드시 언급할 것.

116. 다음 중 (가)와 (나)에 사용된 발상과 표현 기법이 가장 유사한 작품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 ㉠ 바람도 쉬여 넘는 고지 구름이라도 쉬여 넘는 고지 / 山眞(산진)이 水眞(수진)이 海東靑(해동청) 보라미라도 다 쉬여 넘는 高峰(고봉) 長城嶺(장성령) 고지, / 그 넘어 넘어 왔다 흐면 나는 아니 흔番(번)도 쉬여 넘으리라.
- ㉡ 죽령 남쪽 영기 북쪽 소백산 앞 / 천년 흥망 한결 같은 풍류 넘치는 순정성 안 / 판 데 없는 취화봉 왕의 기운 품었으니 / 아! 고을을 중흥케하는 광명, 그것이 야말로 어떻습니까.
- ㉢ 뫓버들 갈해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대. / 지사난 창 밧기 심거 두고 보쇼셔. / 밤비에 새넛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가쇼셔.
- ㉣ 오리의 짧은 다리 학의 다리 되도록애 / 검은 가마귀 해오라비 되도록애 / 享福무강((향복無疆)하샤 억만세를 누리소서.

- ① (가) - ㉠, (나) - ㉡ ② (가) - ㉠, (나) - ㉢
 ③ (가) - ㉢, (나) - ㉠ ④ (가) - ㉡, (나) - ㉢
 ⑤ (가) - ㉡, (나) - ㉠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玉으로 蓮(연)스고줄 사교이다

玉으로 蓮(연)스고줄 사교이다

바회 우회 接柱(접주)호요이다

그 고지 三同(삼동)이 뛰거시아

그 고지 三同(삼동)이 뛰거시아

有德(유덕)하신 님 여히오와지이다

므쇠로 털릭을 말아 나는

므쇠로 털릭을 말아 나는

鐵絲(철사)로 주름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혈어시아

그 오시 다 혈어시아

有德(유덕)하신 님 여히오와지이다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鐵樹山(철수산)에 노호이다

그 쇼 | 鐵草(철초)를 머거아

그 쇼 | 鐵草(철초)를 머거아

有德(유덕)하신 님 여히오와지이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긴히든 그츠리잇가

즈믄 히를 외오곰 녀신들

즈믄 히를 외오곰 녀신들

信(신)잇든 그츠리잇가

(나) 窓(창) 내고자 窓(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窓(창) 내고자.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㉔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압둘져귀 수돌
저귀 비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뚝뚝 박아 이내 가
슴에窓(창) 내고자

있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흐노라.

117.(),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
은?

- ① 생활 현장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 ② 정경 묘사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암시하였다.
- ③ 화자와 대상물을 병치시켜 의미를 강조하였다.
- ④ 비유적 이미지를 통해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였다.
- 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심경을 표출하였다.

118.(가)를 읽고 난 감상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화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방편이 아닐까 해.
- ② 맞아. 그런 반복을 통해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끝없이 다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
- ③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는 임과의 사랑이 그리 순탄치 못하 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어.
- ④ 이 노래의 임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닌, 임금이나 부모, 천지신명과 같은 폭넓은 의미를 지닐 수도 있겠어.
- ⑤ 아니야, 화자가 임의 덕성을 찬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걸 보면 임은 화자를 사랑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119.시적 표현과 관련하여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식이
(가)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꽃잎이여 그대 / 다투아 피어
비바람에 뒤설레며 / 가는 가냘픈 살갗이여
- ②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 ③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
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겐
가 보다.
- ④ 님이여, 당신은 백 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읍소서.
- ⑤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 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120.㉠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관련 깊은 한자 성어로 적
절한 것은?

- ① 일편단심(一片丹心) ② 일심동체(一心同體)
- ③ 수구초심(首丘初心) ④ 감탄고토(甘呑苦吐)
- ⑤ 맥수지탄(麥秀之嘆)

121.㉡'긴'의 의미를 1음절의 현대어로 바꾸어 쓰고, 그 원
관념을 본문 (가)에서 찾아 쓰시오.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눈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눈

털사(鐵絲)로 주름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헐어시아 그 오시 다 헐어시아

유덕(有德)하신 님여해야와지이다

(나) 唐唐唐(당당당) 唐揪子(당쥬즈) 조협(早莢) 남괴

紅(홍)실로 紅(홍)글위 밍요이다.

혀고시라 밀오시라 鄭少年(정소년)하.

위 내 가는 덕 님 갈세라.

葉(엽) 削玉纖纖(삭옥섬섬) 雙手(창슈)入 길혜 削玉
纖纖(삭옥섬섬) 雙手(창슈)入길혜

위 携手同遊(휴슈동유)入 景(경) 괴 엇더흐니잇고.

(다) 방안에 헛는 촛(燭)불 놀과 이별(離別)하엿판드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고야.

저 촛(燭)불 날과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로더라

(라) 구름이 무심(無心)튼 말이 아므도 허랑(虛浪)하다.

중천(中天)에 높이 떠이서 임의(任意)로 다니면서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구태야 광명(光明)한 날빛출 따라가며 덮나니

(마) 冬至(동지)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여
春風(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122.()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 ② 3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다.
- ③ 여러 사물의 특성을 통해 인간의 객관적인 심리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 ④ 분장체 형식의 노래이다.
- ⑤ 역설적인 표현으로 임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123.당대의 사대부(士大夫) 계층들의 사치와 향락 그리고 풍류적인 생활을 노래한 작품은?

- ① (가) ② (나) ③ (다)
- ④ (라) ⑤ (마)

※ 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샹이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샹이다.
선왕성티(先王聖代)에 노니와지이다.

삭삭기 세몰에 별헤 나눈
삭삭기 세몰에 별헤 나눈
구은 밤 닛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유덕(有德)흐신 님을 여히와지이다.

옥(玉)으로 런(蓮)스고줄 사교이다.
옥(玉)으로 런(蓮)스고줄 사교이다.
바희 우희 접두(接主)호요이다.

그 고지 삼동(三洞)이 뛰거시아
그 고지 삼동(三洞)이 뛰거시아
유덕(有德)흐신 님 여히와지이다.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눈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눈
털스(鐵絲)로 주롬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헐어시아
그 오시 다 헐어시아
유덕(有德)흐신 님 여히와지이다.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털슈산(鐵樹山)에 노호이다.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흐신 님 여히와지이다.

구스리 바희에 디신들
구스리 바희에 디신들
긴헛든 그즈리잇가
즈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즈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신(信)잇든 그즈리잇가.

124.이 작품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딩아 돌하’는 작품의 제목과 관련이 있다.
- ② ‘세몰에’는 ‘가는 모래’를 말한다.
- ③ ‘여히와지이다’의 뜻은 ‘여의고(이별하고) 싶습니다.’이다.
- ④ ‘녀신들’은 ‘살아간들’의 뜻이다.
- ⑤ ‘즈른 히’의 의미는 ‘백 년’이다.

125.이 작품과 관련된 해석 중 틀린 것은?

- ① ‘털릭’을 통하여 지은이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다.
- ② 문맥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석가’에서 화자와 임은 현재 헤어져진 상태이다.

- ③ 임에 대한 영원한 연모의 정이 나타나 있다.
- ④ 여성 화자일 경우에는 왜 이별이 불가능한지 좀 더 세세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표현들이 나타날 것이다.
- ⑤ 이 노래는 기원과 축원을 역설에 담고 있는 특이한 작품이다.

126. 노래가 고려가요임을 알 수 있는 근거를 두 가지 쓰시오.

127. 위 글을 읽고 학생들이 토론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수 : 태평성대를 바라는 1연은 이 노래가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면서 추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 ② 영춘 : 이별의 상황에 처한 화자는 재회를 기약하고 임을 믿고 싶다는 희망을 강조하고 있어.
- ③ 영심 : 2연의 ‘나논’은 해석할 필요 없어.
- ④ 영자 :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독특하게 표현함으로써 평범한 진술보다 기억에 남도록 하고 있어.
- ⑤ 영팔 : 6연이 서경별곡 2연과 동일하니까 6연은 당시에 널리 불려지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

128. 위 글에서 두드러지게 쓰인 것으로 ‘표면적으로 모순되지만 그 속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방법을 2음절로 쓰시오.

12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면서 내용이 첨가된 부분이 보인다.
- ②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였다.
- ③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완곡한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각 연이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사랑의 의미를 점차 확대시키고 있다.
- ⑤ 임을 임금으로 볼 경우 신하들이 임금을 송축하는 노래로 볼 수 있다.

130. 위 글에서 보이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긴헛든 그츠리잇가.
즈믄 히를 외오곰 녀신들
즈믄 히를 외오곰 녀신들
新(신)잇든 그츠리잇가.

131. 위 글과 <보기>가 동일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할 때, 위 글에서 <보기>로 상황이 변한 데 따른 화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三三五五(삼삼 오오) 冶遊園(야유원)의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곳 피고 날 저물 제 定處(정처) 업시 나가 잇어, 白馬金鞭(백마 금편)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遠近(원근)을 모르거니 消息(소식)이야 더욱 알랴. 因緣(인연)을 굿쳐신들 생각이야 업슬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르려믄, 열두 썩 김도 길샤 설흔 날 支離(지리)헛다.

- ① 임이 떠난 후 단 하루도 못살 것 같더니, 이제는 그럭저럭 지낼 만하구나.
- ② 내가 임과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듯이 임도 어디선가 내 생각을 하고 계실거야.
- ③ 임과 내가 이별할 운명이라면,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도 임을 사랑하는 한 방법이 아닐까?
- ④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려선 안 돼.
- ⑤ 임과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는데, 어찌하여 임은 내게 소식조차 전해주지 않는 것일까?

132. 위의 작품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작품의 구절을 1가지 이상 활용하여 설명할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玉으로 蓮(연)스고줄 사교이다
玉으로 蓮(연)스고줄 사교이다
바회 우회 接柱(접주)헛요이다
그 고지 三同(삼동)이 뵈거시아
그 고지 三同(삼동)이 뵈거시아
有德(유덕)하신 님 여히으와지이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므쇠로 털릭을 말아 나눈
 므쇠로 털릭을 말아 나눈
 鐵絲(철사)로 주름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혈어시아
 그 오시 다 혈어시아
 有德(유덕)하신 님 여히으와지이다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鐵樹山(철수산)에 노호이다
 그 쇼 | 鐵草(철초)를 머거아
 그 쇼 | 鐵草(철초)를 머거아
 有德(유덕)하신 님 여히으와지이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긴헛든 그츠리잇가
 즘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즘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信(신)잇든 그츠리잇가

(나) 窓(창) 내고자 窓(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窓(창)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들저귀 수들저
 귀 빅목결새 크나큰 장도리로 똑닥 박아 이내 가슴
 에 窓(창)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저 불가 흐노라.

133.(),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 ① 생활 현장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 ② 정경 묘사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암시하였다.
- ③ 화자와 대상물을 병치시켜 의미를 강조하였다.
- ④ 비유적 이미지를 통해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였다.
- 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심경을 표출하였다.

134.(가) 작품의 “즈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신잇든 그츠리잇가” 부분을 현대어로 해석하여 문장 형태로 쓰시오.

135.(가)를 읽고 난 감상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화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방편이 아닐까 해.
- ② 맞아. 그런 반복을 통해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끝없이 다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
- ③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는 임과의 사랑이 그리 순탄치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어.
- ④ 이 노래의 임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닌, 임금이나 부모, 친지친명과 같은 폭넓은 의미를 지닐 수도 있겠어.
- ⑤ 아니야, 화자가 임의 덕성을 찬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걸 보면 임은 화자를 사랑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136.시적 표현과 관련하여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식이 (가)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꽃잎이여 그대 / 다토아 피어
 비바람에 뒤설레며 / 가는 가냘픈 살갓이여
- ②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 ③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 ④ 님이여, 당신은 백 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읍소서.
- ⑤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 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137.㉠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관련 깊은 한자 성어로 적절한 것은?

- ① 일편단심(一片丹心) ② 일심동체(一心同體)
- ③ 수구초심(首丘初心) ④ 감탄고토(甘呑苦吐)
- ⑤ 맥수지탄(麥秀之嘆)

138. ‘긴’의 의미를 1음절의 현대어로 바꾸어 쓰고, 그 원
관념을 본문 (가)에서 찾아 쓰시오.

[ebs부교재] 동동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正月 ㅅ 나릿므른 아으 어저 녹저 ㅎ논디.
누릿 가운디 나곤 몸하 ㅎ울로 념셔.
아으 動動다리.

二月 ㅅ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ㅅ를 다호라.
萬人 비취실 즈시샏다.
아으 動動다리.

三月 나며 開ㅎ 아으 滿春(만춘) 들윗고지여.
녹미 브를 즈슬 디녀 나샏다.
아으 動動다리.

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새여.
므슴다 錄事(녹사)니몬 넷 나를 닛고신더.
아으 動動다리.

五月 五日애, 아으 수릿날 아츰 藥은
즈른 힐 長存(장존)ㅎ살 藥이라 받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六月 ㅅ 보로매 아으 별해 브론 빗 다호라.
도라보실 니를 적곰 좇니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七月 ㅅ 보로매 아으 백중(百種) 배(排)ㅎ야 두고,
니를 ㅎ 디 념가져 願을 비습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팔월(八月) ㅅ 보로몬 아으 가배(嘉俳) 나리마론,
니를 뵈셔 념곤 오늘날 嘉俳샏다.
어우 動動다리.

九月 九日애 아으 藥이라 먹논 黃花(황화)
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ㅎ애라.
아으 動動다리.

十月애 아으 저미연 브릇 다호라.
것거 브리신 後에 디니실 ㅎ 부니 업스샏다.
아으 動動다리.

十一月 ㅅ 봉당 자리에 아으 한삼(汗衫) 두퍼 누워

슬흠스라운더 고우닐 스식옴 념셔.
아으 動動다리.

十二月 ㅅ 분디남ㄱ로 갓곤 아으 나을 반(盤)잇 저 다호라.
니의 알픽 드러 얼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릅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139. < >의 작품과 (가)의 주제 면에서 가장 가까운 월령은?

<보기>

훨훨 나는 꾀꼬리는
암수 다정히 노니는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가리

- ① 二月令(이월령) ② 三月令(삼월령) ③ 四月令(사월령)
④ 五月令(오월령) ⑤ 七月令(칠월령)

140. (가)에서 세시풍속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월령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① 五月令, 六月令, 七月令 ② 四月令, 五月令, 六月令
③ 三月令, 四月令, 五月令 ④ 二月令, 三月令, 四月令
⑤ 五月令, 二月令, 三月令

141.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 자신의 신세를 비유하고 있는 소재를 (가)에서 모두 찾으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德으란 ㉠ 빚에 받죵고, 福으란 림빚에 받죵고,
德(덕)이여 福(복)이라 호닐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다리.

(나) 二月 ㅅ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등) ㅅ를 다호라.
萬人(만인) 비취실 즈시샏다.
아으 動動다리.

(다) 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새여.
므슴다 ㉢錄事(녹사)니몬 넷 나를 닛고신더.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動動다리.

(라) 六月 ㅅ 보로매 아으 별해 ㉠복 빗 다호라.
도라 보실 니를 적곰 좇니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마) 十一月 ㅅ 봉당 자리에 아으 ㉡汗衫(한삼) 두퍼 누워
슬흠스라운더 고우닐 스식옴 념셔.
아으 動動다리.

142.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체 12연으로 된 연가(戀歌)이다.
- ② 고려 시대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 ③ 한 여인의 사랑과 한을 노래하고 있다.
- ④ 우리나라 최초의 월령체 노래이다.
- ⑤ 구전되다가 조선 초 「악학궤범」에 실려 전한다.

143. 위 노래가 민간에서 불리다가 궁중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은?

- ① (가) ② (나) ③ (다)
- ④ (라) ⑤ (마)

144. 다음 중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표현이 <보기>와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이화우 흠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 계량

- ① (가) ② (나) ③ (다)
- ④ (라) ⑤ (마)

145. ㉠ ~ ㉡ 중 시적 화자가 임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부분은?

- ① ㉠ ② ㉡ ③ ㉢
- ④ ㉣ ⑤ ㉤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德(덕)이란 곰비에 받좁고, 福(복)이란 림비에 받좁고,

德이여 福이라 호닐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다리.

正月(정월)ㅅ 나릿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흥논디.

누릿 가운데 나곤 몸하 흥올로 념셔.

아으 動動(동동)다리.

二月(이월)ㅅ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등)ㅅ 불 다호라.

滿人 비취실 즈시샏다.

아으 動動다리.

三月(삼월) 나며 開흔 아으 晩春(만춘) 들윗고지여.

늑미 브를 즈슬 디너 나샏다.

아으 動動다리.

四月(사월)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새여.

므슴다 緣事(녹사)니몬 넷 나를 닛고신더.

아으 動動다리.

五月(오월) 五日(오일)애, 아으 수릿날 아츰 藥(약)은

즈문 힐 長存(장존)흥살 藥이라 받좁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六月ㅅ 보로매 아으 별해 복론 빗 다호라.

도라보실 니를 ㉢적곰 좇니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七月ㅅ 보로매 아으 百種(백종) 排(배)ㅎ야 두고,

니를 흥 디 념가져 願(원)을 비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八月(팔월)ㅅ 보로몬 아으 嘉排(가배) 나라마른,

니를 뵈셔 념곤 오늘날 嘉俳샏다.

아으 動動다리.

九月(구월) 九日(구일)애 아으 藥이라 먹논 黃花(황화)

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ㅎ애라.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아으 動動다리.

十月(시월)에 아으 저미연 브룻 다호라.

것거 브리신 後(후)에 디니실 혼 부니 업스샷다.

아으 動動다리.

十一月(십일월)스 봉당 자리에 아으 汗衫(한삼) 두퍼 누워

슬홀스라운더 고우닐 스식옴 념셔.

아으 動動다리.

十二月(십이월)스 분디남 ㄹ로 갓곤 아으 나술 盤(반) 잇 저 다호라.

니의 알픽 드러 ㉠엘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르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나)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호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

잡사와 두어리마누는

선호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太平盛代

설은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닷 도서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

(다) 西京이 아즐가 西京이 서울히 마르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닷곤 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질삼뵈 브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러곰 좇니노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146.()~(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임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 ② 음악적인 필요에 의해 생긴 부분이 있다.
- ③ 내용적으로 후대의 경기체가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
- ④ 후렴구(여음)는 이별의 슬픔을 하소연하는 내용이다.
- ⑤ 자기 고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이 담겨 있다.

147.<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동동>의 2연 이하는 계절이 변화하고 명절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면서 그때마다 임이 생각한다고 했다. 서술자는 여성이며 임은 남성이다. 오늘날까지도 민요로 전승되고 있는 것과 같은 달거리 사랑노래를 가져다가 궁중의 정재에서 부르는 속악가사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 ① 자연의 순환과 인생살이를 대비하고 있다.
- ② 1연과 나머지 다른 연의 관계가 유기적이지 못하다.
- ③ 임을 생각하다 결국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다.
- ④ 월령체인 <농가월령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⑤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민요를 궁중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148.(가)에서 화자가 버려진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 시어를 3개 찾아 쓰시오.

149.(나)의 시적 화자와 <보기>의 시적 화자가 나눈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 ① (나) : 나는 임을 떠나보내고 있지만, 사실 내 진심은 임을 붙잡아 두고 싶은 것이야.
- ② <보기> : 그러지 말고 나처럼 꽃을 뿌려주면서 떠나는 임을 보내주는 게 어떨까?
- ③ (나) : 네 말이 옳아. 나는 임이 원망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잘 가라고 보내주고 임을 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 ④ <보기> :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임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 ⑤ (나) : 그래도 나는 임이 나를 떠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자주 정말 나를 버리고 갈 것이냐고 묻고 싶어.

150. ㉠~㉥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드리러 ② ㉡ : 잠시라도
- ③ ㉢ : 가지런히 놓으니 ④ ㉣ : 올까 두렵습니다.
- ⑤ ㉤ : 괴롭습니다마는

151. (가)에서 <보기>의 ㉠과 관계 있는 것은?

<보기>

사랑하는 나의 임께.

당신은 마치 등불처럼 밝고 진달래꽃처럼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 자연은 절기에 맞춰 어김없이 순환하고, 명절은 때가 되면 항상 돌아오는 데 왜 당신은 돌아오지 않으시는지요. 사람들은 명절이 좋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당신 없는 명절은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 ① 나룻물 ② 누리 ③ 별해
- ④ 汗衫(한삼) ⑤ 嘉俳(가배)

152. (나)와 (다)의 시적 화자가 보여주는 이별에 대한 태도의 차이점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德으란 곱비에 받잡고 福으란 림비에 받잡고

德이여 福이라 호날 ㉠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다리.

正月^ㅅ 나룻므른 아으 아저 녹저 흥논디.

누릿 가온디 나곤 몸하 흥올로 녀셔.

아으 動動다리

二月^ㅅ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ㅅ 불 다호라

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 아으 動動다리

三月 나며 開^ㅎ 아으 滿春(만춘) 들윗고지여.

늑믹 브롤 즈슬 디너 나샷다 / 아으 動動다리

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서 곳고리새여

므슴다 緣事(녹사)니몬 냇나를 닛고신더.

아으 動動다리

五月 五일에 아으 수룻날 아춤 藥은

즈믄힐 長存(장존)흥샷 藥이라 받잡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六月^ㅅ 보로매 아으 ㉢별해 브론 빗 다호라

도라보실 니믈 적곰 좇니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七月^ㅅ 보로매 아으 백종(百種) 俳^ㅎ야 두고,

니믈 혼디 녀가져 원(願)을 비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八月^ㅅ 보로몬 아으 嘉俳(가배)나리마론,

니믈 되셔 녀곤 오늘낫 嘉俳샷다.

아으 動動다리

九月 九일에 아으 藥이라 먹논 黃化(황화)

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흥애라.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아으 動動다리

十月에 아으 저미연 브릇 다호라.

것거 브리신 後에 다니실 혼 부니 업스샷다.

아으 動動다리

十一月入 봉당 자리에 아으 汗衫(한삼) 두퍼 누워

슬홀스라운더 고우닐 스식움 녀셔.

아으 動動다리

十二月入 분디남 ㅁ로 갓곤 아으 나솔 盤(반)잇 저 다호라.

니미 @알핀 드러 열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릅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나)

<제1장>

[A]元淳文(원순문) 仁老詩(인노시) 公老四六(공노스륙)

李正言(니정언) 陳翰林(딘한림) 雙韻走筆(쌍운주필)

沖基對策(통기퇴척) 光鈞經義(광균경의) 良鏡詩賦(량경시부)

위 試場(시당)入 景(경) ㅁ 잇더흐니잇고.

葉(엽) 琴學士(금학스)의 玉笋門生(옥순문싱) 琴學士(금학스)의 玉笋門生(옥순문싱)

위 날조차 몇 부니잇고.

<제8장>

唐唐唐(당당당) 唐揪子(당쥬즈) 조협(早莢) 남긔

紅(홍)실로 紅(홍)글위 므요이다.

혀고시라 밀오시라 鄭少年(딩소년)하.

위 내 가는 ㅁ 늣 갈세라.

葉(엽) 削玉纖纖(삭옥섬섬) 雙手(상슈)入 길헤 削玉纖纖(삭옥섬섬) 雙手(상슈)入길헤

위 携手同遊(휴슈동유)入 景(경) ㅁ 잇더흐니잇고.

은?

- ① (가)는 국문학사상 최초의 월령체 노래로 일 년 열두 달에 맞춘 노래이다.
- ② (가)의 1연은 궁중 악곡으로 편입되면서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③ (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문자로 기록되었다.
- ④ (나)는 현재 전하는 경기체가 중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 ⑤ (나)는 한림원의 여러 유학자들이 지은 것으로, (나)에는 그들의 충군애민(忠君愛民)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154.(가)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월령 : ‘燈入불’은 연등제와 관련된 소재로 만인의 우려를 받을 임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 ② 5월령 : 단오를 맞이해 아침 약을 바치며 임의 병이 하루 빨리 낫길 기원하고 있다.
- ③ 7월령 : 백중일에 상을 차려놓고 임과 함께 살고 싶은 소망을 빌고 있다.
- ④ 8월령 : 한가위는 왔으나 임이 없는 한가위는 한가위 같지 않다며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⑤ 9월령 : 중양절을 맞이하여 임이 없이 명절을 보내야 하는 쓸쓸함을 표현하고 있다.

155.(가)의 4월령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뒤흘 바라보니 / 그리던 님이 온다
반가움이 이러흐라 /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도하흐노라.
- ② 미암이 밍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니, / 산채(山菜)를 밍다
는가 박주(薄酒)를 쓰다는가. / 우리는 초야(草野)에 못쳐시니 밍고 쓴 줄 몰니라.
- ③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故人) 못 뵈. / 고인(古人)을 못 보도 녀던 길 알 꺾 잇긔 / 녀던 길 알 꺾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 ④ 춘산(春山)에 눈 녹인 바람 건듯 불고 간 데 업다. / 저근덧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불리고자 /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 불가 하노라.
- ⑤ 이화(梨花)우(雨) 훗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흔 님, /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싱각는가. / 천리(千里)에 외로운 쏜만 오락가락 하노매.

153.()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156.()에서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사물 세 가지를 찾아 다음 조건에 맞추어 쓰시오.

<보기>

본문에 주어진 표기대로 찾아 쓸 것, 각 1어절, 표기가 바르게 쓸 것.

157.㉠~㉣의 뜻을 현대어로 쓰시오.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스 불 다호라
萬人(만인)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動動다리

三月 나며 開^흔 아으 滿春(만춘) 들윗고지여.
늑믹 브를 즈슬 디너 나샷다

아으 動動다리

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서 ㉡꽃고리새여
므슴다 綠事(녹사)니몬 냇나를 냇고신더.
아으 動動다리

五月 五일에 아으 수릿날 아츰 藥은
즈믄 힐 長存(장존)흐살 藥이라 받즙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六月^스 보로매 아으 별해 브론 ㉢빛 다호라
도라보실 니믈 적곰 좇니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 작자 미상, '동동'

158.(가)에서 입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드러나 있는 부분을 찾아 그 행 전체를 쓰되, 반드시 현대 국어의 표지로 바꾸어 쓰시오.(한자음이 들어 있을 경우는 그 음을 그

대로 쓰면 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德으란 곱빅에 받즙고 福으란 림빅에 받즙고
德이여 福이라 호닐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다리.

(나) 正月^스 나릿 므른 아으 아저 녹저 흐논딕.
누릿 가온딕 나곤 몸하 흐올로 념서.

아으 動動다리

(다) 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스 불 다호라
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動動다리

(라) 三月 나며 開^흔 아으 滿春(만춘) 들윗고지여.
늑믹 브를 즈슬 디너 나샷다

아으 動動다리

(마) 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서 꽃고리새여
므슴다 綠事(녹사)니몬 냇나를 냇고신더.

아으 動動다리

(바) 五月 五일에 아으 수릿날 아츰 藥은
즈믄 힐 長存(장존)흐살 藥이라 받즙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사) 六月^스 보로매 아으 별해 브론 빛 다호라
도라보실 니믈 적곰 좇니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아) 七月^스 보로매 아으 백종(百種) 俳^하야 두고,
니믈 흐딕 녀가져 원(願)을 비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자) 八月^스 보로몬 아으 嘉俳(가배) 나리마룬,
니믈 피서 녀곤 오늘낫 嘉俳샷다.

아으 動動다리

(차) 九月 九일에 아으 藥이라 먹논 黃化(황화)
고지 안해 드니 새서 가만흐애라.

아으 動動다리

(카) 月에 아으 저미연 브릇 다호라.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것거브리신 後에 다니실 혼 부니 업스샷다.

아으 動動다리

(타) 一月入 봉당 자리에 아으 汗衫(한삼) 두퍼 누워
슬홀스라온더 고우닐 스식옴 넘셔.

아으 動動다리

(과) 十二月八 分디남마로 갓곤 아으 나술 盤(반)잇 저 다 호라.

니미 알퐁 드러 열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릅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 ‘동동(動動)’

님이여, 사랑이여, 옛 오동(梧桐)의 숨은 소리여.

님이여, 당신은 봄과 광명(光明)과 평화(平和)를 좋아하십니까.

약자(弱者)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자비(慈悲)의 보살(菩薩)이 되옵소서. / 님이여, 사랑이여, 얼음 바다의 봄바람이여.

- ‘찬송(讚頌)’, 한용운

- ① (나) ② (다) ③ (마)
④ (사) ⑤ (차)

[ebs부교재] 정과정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내 님을 ㉠ 그리스와 우니다니
山(산) 접동새 난 ㉡ 이슥하오이다.
㉢ 아니시며 거츠르신 돌 아으
㉣ 殘月曉星(잔월 효성)이 아루시리이다.
녁시라도 님은 훈디 녀져라 아으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過(과)도 허물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물헛마리신더
㉤ 솔웃분더 아으
니미 나를 흐마 나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도르샤 괴오쇼셔. - 정과정

(나)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서울히 마르느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여히 므른 아즐가 괴시란디 우러곰 좇니노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 서경별곡

(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대)
날러는 덧디 살라 하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대)
잡스와 두어리마느논
선흐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대)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대) - 가시리

163. () ~ (다)의 화자가 <보기>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보기>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에 악산(躍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① (가) : 임이 왜 떠나는 지 물어보았나요? 혹시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하잖아요.
- ② (나) : 지금 있는 곳이 아무리 중요한 곳이라고 해도 임이 떠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 ③ (다) : 임을 사랑하지만 보낸다는 점에서 우리 둘은 같은 상황이군요.
- ④ (다) : 하지만, 기다린다고 해서 올까요? 직접 두 발로 임을 찾아나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 ⑤ (나) : 더욱 당당하고 솔직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표현해도 좋을 거라 생각해요.

164. (가)의 ㉠ ~ ㉤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리스와 : 그리며, 그리워하며
- ② ㉡ 이슥하오이다 : 비슷합니다.
- ③ ㉢ 아니시며 거츠르신 : 안이며 곁이며
- ④ ㉣ 잔월효성 : 자는 달과 새벽 별
- ⑤ ㉤ 솔웃분더 : 슬프구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산(空山)에 쌓인 잎을 북풍(北風)이 거두 불어 /
떼구름 거느리고 눈까지 몰아오니, 천공(天公)1)이 일을 즐겨 옥(玉)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萬樹千林)을 잘도 꾸며 내었구나. 앞 여울 가리어 얼어 외나 무다리 걸렸는데, 막대 맨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다는 말인가. 산옹(山翁)의 이 【부귀(富貴)】를 남에게 소문내지 마오. ㉠경요굴(瓊瑤窟)2) 은세계(隱世界)를 찾을 이 있을까 두렵구나.

산중(山中)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놓고 만고(萬古)의 인물(人物)을 거슬러 세어 보니 성현(聖賢)도 많거니와 호걸(豪傑)도 많고 많다. 하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무심(無心)하랴마는 엇지된 시운(時運)이 흥했다 망했다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끝이 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고불(古佛) 귀는 어찌 씻었던가. 박 소리도 귀찮다 평계하고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버린 조작(操狀)이 가장 높다.

인심(人心)이 얼굴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옛그제 빛은 술이 얼마나 익었는가. / 술잔을 잡거니 권하거니 실컷 기울이니 / 마음에 맞힌 시름이 조금이나마 덜어진다. / 거문고 줄을 얹어 풍립송(風立訟)을 타자꾸나. 손님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도다. / 높고 먼 하늘에 떠 있는 학이 이 고을의 진선(眞仙)이라. 이전에 달 아래서 혹시 만나지 아니하였는가. / 손님이 주인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곧 진선인가 하노라.

- 정철, 『성산별곡(星山別曲)』

1) 천공 : 조물주

2) 경요굴 : 옥으로 만든 굴, 여기서는 성산(성산)을 의미함.

(나) 내 님을 그리스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슥흐요이다.¹⁾

아니시며 거츠르신 둘²⁾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르시리이다.

넥시라도 님은 혼디 녀저라 아으

벼기시더니³⁾ 뉘러시리잇가.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물히마리신더⁴⁾ / 슬웬븐더⁵⁾ 아으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궤오쇼셔.

-정서, 『정과정』-

1) 이슥흐요이다 : 비슷합니다

2) 거츠르신 둘 : 거짓인 줄을

3) 벼기시더니 : 우기시던 이

4) 물히마리신더 : 물 사람의 혈뜬는 말로다.

5) 슬웬븐더 : 슬프구나.

165. ㉠ ~ ㉡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는 화자가 지향하는 관념의 세계이다.
- ② ㉠은 세속과 대비되는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③ ㉠에서는 ㉡, ㉡와 달리 계절감을 느낄 수 있다.
- ④ ㉡는 ㉠과 달리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대상이다.
- ⑤ ㉡는 ㉠과 달리 화자의 결백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166. <보기>를 토대로 하여 (가)를 이해할 때, <보기>의 밑줄 친 '㉠인물'이 누구인지를 (가)에서 찾아 쓰고, <보기>의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서술하시오.

<보기>

(가)의 화자는 서책을 쌓아 놓고 만고의 인물들을 살피고 는 성현도 많고 호걸도 많지만 어찌 시운(時運)은 흥했다 망했다 하는가 하고 노래한다. 그 과정에서 한 ㉠인물의 지조있는 행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를 통해 자신도 자연 속 풍류 생활을 긍정하고 추구하고 있다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 면에서 (가)의 [부귀(富貴)]는 일반적인 '부귀(富貴)'의 의미가 아닌 ㉡ (으)로 해석할 수 있다.

< >

- 1. '㉠은 ~이고 ㉡은 ~이다.'의 형식으로 작성할 것.
- 2. ㉠은 본문에서 찾아 쓸 것

167.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해석할 때, (1) <보기>의 ㉠의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시행 하나를 (나)에서 찾아 쓰고, (2) 그 시행을 현대어로 풀이하시오.

<보기>

정서가 역모에 가담했다는 죄명으로 귀양을 가게 되자 의종은 “오늘은 어쩔 수 없으나, 가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으므로, 정서는 의종에게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약속을 상기시켜 왕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지었고 결국 1170년 왕의 용서를 받고 다시 등용되었다고 한다.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님을 그리스와 우니다니

山 접동새 난 ㉡이슥흐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둘 아으

殘月曉星이 아르시리이다.

넥시라도 님은 혼디 녀저라 아으

벼기시더니 뉘러시리잇가.

過도 허물도 ㉣千萬 업소이다.

물히마리신더 ㉤슬웬븐더 아으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궤오쇼셔.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168.()에서 밑줄 친 부분의 문맥적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비슷하나이다. ② 나 - 거칠어진 것을
- ③ 다 - 전혀 ④ 라 - 슬프군요
- ⑤ 마 - 벌써

169.(가)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국문학사적 가치를 서술하시오.

[ebs부교재] 만전춘별사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름 우희 댕넙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만덩
어름 우희 댕넙자리 보아 님과나와 어러 주글만덩
정(情) 둔 오늘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경경(耿耿) 고침상(孤枕上)에 어느 즈미 오리오.
서창(西窓)을 여러히니 ㉠桃花(도화)ㅣ 發(발)하두다.
桃花(도화)난 시름 업서 소춘풍(笑春風)흐느다 소춘
풍(笑春風)흐느다.

너시라도 님을 혼 디 너넛 景(경) 너기다니
너시라도 님을 혼 디 너넛 景(경) 너기다니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울하 울하 아련 비울하.
여흘란 어디두고 소해 자라 온다.
소곳 얼면 여흘도 도흐니 여흘도 도흐니.

南山(남산)에 자리 보와 玉山(옥산)을 베퍼 누어
錦繡山(금수산) 니블 안해 ㉢麝香(사향)각시를 아나
누어
藥(약)든 가슴을 맛초압사이다 맛초압사이다.

아소 님하 원대평생(遠代平生)에 여혈살 모라압새.

<만전춘별사>

(나) 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선왕성덕(先王聖代)에 노니와지이다.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눈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눈
구은 밤 닻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유덕(有德)흐신 님를 여히와지이다.

옥(玉)으로 련(蓮)스고줄 사교이다.
옥(玉)으로 련(蓮)스고줄 사교이다.
바희 우희 접두(接主)흐요이다.
그 고지 삼동(三同)이 꿔거시아
그 고지 삼동(三同)이 꿔거시아
유덕(有德)흐신 님 여히와지이다.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눈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눈
탈스(鐵絲)로 주롬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혈어시아
그 오시 다 혈어시아
유덕(有德)흐신 님 여히와지이다.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털슈산(鐵樹山)애 노호이다.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흐신 님 여히와지이다.

㉣구스리 바희에 디신들
구스리 바희에 디신들
긴히든 그츠리잇가
즈믄 히를 외오곰 녀신들
즈믄 히를 외오곰 녀신들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정석가>

滿開(만피)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다) 동지(冬至)* 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비껴 내여,
 춘풍(春風) 니블 아래 서리서리 너털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황진이>

(라) ㉔돌하 노피곰 도드샤,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저재 너러신고요
 어귀야 준 덕틀 드덕올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귀야 내 가는 덕 점그를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170.() ~ (라)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 ① 3,4조 4음보의 규칙적 리듬감을 지니고 있다.
- ② 선경후정(仙境後情)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직설적인 어조로 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임과의 결합을 지향하는 마음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 ⑤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자연물에 이입시켜 표현하고 있다.

171.㉠ ~ ㉔ 중,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감정이 <보기>의 '풀'과 유사한 것은?

구렁에 난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알 리 엄스니 귀 아니 조홀소냐.
 우리는 너희만 못하여 시름겨워 하노라.

<이정환>

- ① ㉠ ② ㉡ ③ ㉢ ④ ㉣ ⑤ ㉤

172.(가)의 1 ~ 5연중, <보기>의 설명과 관계 깊은 것은?

알레고리(Allegory) : 이 용어는 '다르게 말한다'는 그리스의 'allegoria'란 말에서 나온 것으로 이중적 의미를 가진 이야기 유형을 지칭한다. 즉,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의 유형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두 가지의 수준에서 얹히고 이해되며 해석될 수 있다. 이 용어는 우화나 비유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화는 일차적으로는 동물 세계의 이야기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인간 세계를 빗대어 말하는 이중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① 1연 ② 2연 ③ 3연
 ④ 4연 ⑤ 5연

173.(나)의 2 ~ 5연에 드러난 발상 및 표현 방법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병풍에 그린 황계 두 나래를 동당 치며
 사오경(四五更) 일점(一點)에 날 새라고 꼬끼오 울거든 오라 시나.
- ② 나무 도막으로 당담을 깎아 / 짓제주여자로 집어 벽에 앉히고
 이 새가 꼬끼오 하고 때를 알리면
 어머니 얼굴은 비로소 서쪽으로 기우는 해처럼 늙으시리라.
- ③ 춘산(春山)에 눈 녹인 바름 건 듯 불고 간 뉘 업다.
 저근덧 비러다가 마리 우회 불니고져.
 귀 밋티 희목은 서리를 녹여 불가 흥노라.
- ④ 올해 다른 다리 학기 다리 되도록에 / 거른 가마피 해오라 비 되도록에
 향복무강(享福無疆) 하샤 억만세(億萬歲)를 누리소서
- 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

174.<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표현이 드러난 것은?

(다)는 입을 기다리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참신한 비유와 의태적 심상을 통해 형상화한 작품이다. 특히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한 표현 기법이 매우 참신하고 생생한 인상을 주어 작품 전체에 신선한 느낌을 불어넣고 있다.

- ①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 벼락과 해일(海溢)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 단장(斷章)'>
- ② 북국에는 날마다 밤마다 눈이 내리느니,
 회색 하늘 속으로 흰 눈이 퍼부을 때마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눈 속에 파묻히는 하얀 복조선이 보이느니.

<김동환, '눈이 내리느니'>

③ “고놈, 눈동자가 초롱 같애.” /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할머니,

바깥엔 연방 눈이 내리고 / 오늘 밤처럼 눈이 내리고

<김용호, '눈 오는 밤에'>

④ 삶은 언제나 / 은총(恩寵)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 섭리(攝理)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김남조, '설일'>

⑤ 살아서 / 좋은 일도 있었다고

나쁜 일도 있었다고 / 그렇게 우는 한 마리 새.

<천상병, '새'>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얼음 위에 맺녔 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얼음 위에 맺녔 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정(情) 둔 오늘 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경경(耿耿) 고침상(孤枕上)에 어느 잠이 오리오
서창(西窓)을 열어하니 ㉠도화(桃花)가 발(發)하도다
도화는 시름없어 소춘풍(笑春風)하도다 소춘풍하도다

넋이라도 님을 한데 녀넋 경(景) 여겼더니
넋이라도 님을 한데 녀넋 경(景) 여겼더니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올하 올하 하런 비올하
여울은 어디 두고 소(沼)에 자리 오느냐?
소곳 얼면 여울도 좋으니 여울도 좋으니

남산(南山)에 자리 보아 옥산(玉山)을 베고 누워
금수산(錦繡山) 이불 안에 사향(麝香)각시를 안아 누워
남산에 자리 보아 옥산을 베고 누워
금수산 이불 안에 사향각시를 안아 누워
약(藥) 든 가슴을 맞추옵사이다 맞추옵사이다

아소 님하
원대평생(遠代平生)에 여월 줄 모르옵세

- 작자미상, 만전춘별사

175. 의 시적 기능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남시 드리치고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無心)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

- 월산대군

② 사월(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서 곳고리새여.

므슴다 녹사(綠事)니몬 뱃 나를 닛고신더

- 작자 미상, '동동'

③ 공명(功名)도 날 싹우고, 부귀(富貴)도 날 싹우니, 청풍명월
(淸風明月) 외(外)에 었던 뱃이 잇스올고.

- 정극인, '상춘곡'

④ 들하 노피곤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 작자 미상, '정읍사'

⑤ 방(房) 안에 헛는 촉(燭)불 놀과 이별(離別)헛엇판디,

것츠로 눈물 디고 속 타는 줄 모로논고.

더 촉(燭)불 날과 갓트여 속 타는 줄 모로도다.

- 이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얼음 위에 맺녔 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얼음 위에 맺녔 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정(情) 둔 오늘 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경경(耿耿) 고침상(孤枕上)에 어느 잠이 오리오
서창(西窓)을 열어하니 도화(桃花)가 발(發)하도다
도화는 시름없어 소춘풍(笑春風)하도다 소춘풍하도다

넋이라도 님을 한데 녀넋 경(景) 여겼더니
넋이라도 님을 한데 녀넋 경(景) 여겼더니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올하 올하 아런 비올하

㉢여울은 어디 두고 ㉣소(沼)에 자리 오느냐?

소곳 얼면 여울도 좋으니 여울도 좋으니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남산(南山)에 자리 보아 옥산(玉山)을 베고 누워
 금수산(錦繡山) 이불 안에 사향(麝香)각시를 안아 누워
 남산에 자리 보아 옥산을 베고 누워
 금수산 이불 안에 사향각시를 안아 누워
 약(藥)든 가슴을 맞추옵사이다 맞추옵사이다

아소 님하

원대평생(遠代平生)에 여윌 줄 모르옵세

176. ~㉔의 시어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쓰시오.

- ㉑: _____
 ㉒: _____
 ㉓: _____

177. 위 시의 1연에서 보이는 발상과 <보기>의 발상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보기>

천지간 만물지중에 그 무엇이 무서운고.

백액호(白額虎) 시랑(豺狼)이며 대말 독사(毒死) 오공(蜈蚣) 지주 야차 두역신과 이매망량 요괴(妖怪) 사기며 호정령 몽달귀신 염라사자와 시왕차사를 다물속 꺾어 보았으나

아마도 님을 못 보면 간장에 불이 나서 사라져 죽게 되고 불지라도 놀라고 끔찍하여 사지가 절로 녹아 어린 듯 휘한 듯이 말도 아니 나기는 님이신가 하노라.

- 육당본 “청구영언”

< >

1. 시적 상황과 연관 지어 서술할 것.
2. 100자 이상으로 서술할 것.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얼음 위에 땃녘 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얼음 위에 땃녘 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㉑정(情) 둔 오늘 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경경(耿耿) 고침상(孤枕上)에 어느 잠이 오리오
 서창(西窓)을 열어하니 도화(桃花)가 발(發)하도다

㉒도화는 시름없어 소춘풍(笑春風)하도다 소춘풍하도다

넋이라도 님을 한데 녀넋 경(景) 여겼더니
 넋이라도 님을 한데 녀넋 경(景) 여겼더니
 ㉓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올하 올하 아련 비올하

㉔여울은 어디 두고 소(沼)에 자려 오느냐?

소곳 열면 여울도 좋으니 여울도 좋으니

남산(南山)에 자리 보아 옥산(玉山)을 베고 누워
 금수산(錦繡山) 이불 안에 사향(麝香)각시를 안아 누워
 남산에 자리 보아 옥산을 베고 누워
 금수산 이불 안에 사향각시를 안아 누워
 약(藥)든 가슴을 맞추옵사이다 맞추옵사이다

아소 님하

㉕원대평생(遠代平生)에 여윌 줄 모르옵세

178. ㉑~㉕의 시구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임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천천히 흐르기를 바라는 화자의 기쁜 마음이 담겨 있다.
- ② ㉒: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사물을 통해 화자의 외로움을 극대화하고 있다.
- ③ ㉓: 임의 배신으로 인해 외로움에 떨고 있는 화자가 임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 ④ ㉔: 사랑의 약속을 어기고 다른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돌아온 임을 조롱하고 있다.
- ⑤ ㉕: 사랑하는 임과 영원히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는 소망이 나타나 있다.

179. <보기>와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만전춘별사’는 각 연의 내용과 표현이 이질적인 것으로 보아서 여러 작품을 합성하고 재편성하여 궁중 음악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 ① 다른 고려가요 작품에 동일한 연이 발견되었다.
- ② 전체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
- ③ 내용이 직설적이고 솔직하여 자유분방한 고려인들의 사회상을 나타내었다.
- ④ 우리말이 대부분인 1, 3, 4연과 달리 2, 5연에서는 한자어

滿開(만피)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가 많이 사용되었다.

- ⑤ ‘임과의 만남-임과의 이별-임에 대한 원망과 풍자-이별 없는 사랑에 대한 기원’으로 그 내용이 유기적으로 전개되었다.

180. 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동원하여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시적 상황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복잡한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③ 일관된 어조로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고 있다.
④ 반복을 통해 다짐이나 원망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⑤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적 함축성을 높이고 있다.

- 1) ③
- 2) ⑤
- 3) ①
- 4)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나)는 (가)에 비해 건국을 위한 투쟁 과정이 강조되어 있다.
- 5) ⑤
- 6) ④
- 7) 당대에 신분 질서의 동요가 있었으며 신분의 변동 양상이 보이기 시작하던 시대였다. 작자는 이 작품을 통해 양반의 타락상을 비판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양반들의 의식 개혁을 촉구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은 풍자의 기법이라 할 수 있다.
- 8) [정답] ④
- 9) [정답] ④
- 10) [정답] 돌미륵
- 11) [정답] ③, ⑤
- 12) [정답] ④
- 13) [정답] ②
- 14) [정답] ⑤
- 15) [정답] 주인공은 세속적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고 그 욕망을 추구하였으나 꿈 속에서의 삶을 통해 세속적 욕망의 허망함과 인생의 무상감을 느끼게 되었다.
- 16) [정답] ③
- 17) [정답] ④
- 18) [정답] ②
- 19) [정답] ②
- 20) [정답] ③
- 21) [정답] ③
- 22) [정답] ②
- 23) [정답] ①
- 24) [정답] ④
- 25) [정답] ①

- 26) [정답] 염량세태 / 권세(세력)가 있을 때에는 아첨하여 따르고 권세(세력)가 없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상인심을 뜻한다.
- 27) [정답] 구체적 증거물이 존재한다.
- 28) [정답] ①
- 29) [정답] ④
- 30) [정답] ⑤
- 31) [정답] ①
- 32) [정답] ④
- 33) [정답] 탐욕을 버리는 것이다.
- 34) [정답] ②
- 35) [정답] ①
- 36) [정답] (1) 설상가상 (2) 붉은 / 버들가지입니다.
- 37) [정답] ①
- 38) [정답] ④
- 39) [정답] ①
- 40) [정답] ④
- 41) [정답] (1) 돌미륵은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2) 각몽전에는 세속적 욕망을 갈구했으나 각몽 후에는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과 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불교적 깨달음을 얻게 된다.
- 42) [정답] ①
- 43) [정답] (가)글의 조신은 갖은 고생과 가난, 고통을 겪었고, 구운몽의 성진은 온갖 부귀와 영화를 겪어 꿈 내용이 서로 상반된다. 그러나 꿈에서 깬 뒤 두 주인공 모두 인생의 욕심은 부질없고 인생이 헛되다는(인생무상) 점을 깨달은 면에서는 같다.
- 44) [정답] ②
- 45) [정답] ③
- 46) [정답] ①
- 47) [정답] 고려시대 신홍사대부의 등장으로 문학사에 새로이 등장한 문학양식은 경기체가, 시조, 전 등이다.
- 48) [정답] ③
- 49) [정답] ③
- 50) [정답] ④

- 51) [정답] ⑤
[] 우리나라 여성의 삶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 52) [정답] ②
- 53) [정답] ①
[해설] 이 글은 전설로 용소와 머느리 바위라는 증거물이 제시되고 있으며 금기를 어김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
- 54) [정답] ④
- 55) [정답] ①
[해설] '종두득두'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의미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의미이다.
- 56) [정답] ⑤
- 57) [정답] ⑤
- 58) [정답] ③
[해설] 전설의 가장 큰 특징은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다는 것이다.
- 59) [정답] ④
- 60) [정답] ③
- 61) [정답] ②
- 62) [정답] ①
- 63) [정답] ⑤
- 64) [정답] ⑤
[해설] 장재첨지는 욕심이 많은 인물로 탐욕을 경계하라는 충고가 적합하다.
- 65) [정답] ③
- 66) [정답] ④
- 67) [정답] ⑤
[해설] 용소와 머느리 바위가 생성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이다. 인과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한 것을 찾으면 된다. ①은 서사, ②는 묘사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68) [정답] ④
- 69) [정답] ①
- 70) [정답] ①
- 71) [정답] ④
- 72) [정답] ③
[해설] 도승은 초월적 존재로 심판자의 역할을, 장재첨지는 탐욕스러운 악인의 대표 유형을, 머느리는 너그러운 선인의 대표 형의 인물이다.
- 73) [정답] ②

- 74) [정답] ①
- 75) [정답] ④
[해설] 구어체에서 나타나는 군소리(체언)는 아무런 뜻 없이 습관처럼 사용하는 표현이다.
- 76) [정답] ②
- 77) [정답] ③
- 78) [정답] ④
- 79) [정답] ①
[해설] 전설의 가장 큰 특징은 구체적인 증거물이 제시된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용소와 머느리 바위가 증거물이다.
- 80) [정답] ③
- 81) [정답] ②
[해설] 위 글에 쓰인 조직 방법은 인과적 방법이다. 인과는 원인과 결과로 동태적 전개 방식 중의 하나이다.
- 82) [정답] ②
- 83) [정답] ③
[해설] 기사문의 표제는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야 하며, 부제는 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 84) [정답] ①
[해설] 용소와 머느리바위의 인물과 모티프를 성서의 소돔과 고모라 내용, 옥구군 미면의 부자 이야기와 비교해 놓은 문제이다. <보기>의 아브라함은 선을 대변하는 인물이며, 하느님이 심판자에 해당한다.
- 85) [정답] ④
- 86) [정답] ①
[해설] 위의 글은 전설이며, <보기>의 글은 논설문의 일종인 연설문이다. 전설은 구비문학으로 구연자의 말이 개입할 여지를 많이 가진 글이다.
- 87) [정답] ③

- 88) [정답] ⑤
[] 금기를 어긴 사람은 며느리이다. 며느리는 도승이 준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어겨서 화석으로 변하고 만다.
- 89) [정답] ①
90) [정답] ③
[해설] 불타산은 신성한 곳, 초월적 세계로 ③의 하늘은 춘향이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이상 세계를 나타낸다.
- 91) [정답] ⑤
92) [정답] ②
93) [정답] ①
94) [정답] ②
[해설] 장재 첨지는 욕심이 많은 인물로 탐욕을 경계하고 만족하며 살라는 내용이 시조가 적합하다.
- 95) [정답] ①
[해설] 인색하다는 말은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몹시 지나치다'라는 뜻으로 초등학교가 대상일 경우 그 말을 더 쉽게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글은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 표현이나 전달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 96) [정답] ②
97) [정답] ③
[해설] '금기'는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전설에서는 이 금기를 깨트림으로 인해 비극적 결말을 맞게된다.
- 98) [정답] ②
99) [정답] ⑤
100) [정답] ③
101) [정답] ④
102) [정답] ④
[해설] 이 글은 전체적으로는 인과적 조직 방법을, 전설의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은 시간적 조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간적 조직 방법을 찾아야 한다.
- 103) [정답] ②
104) [정답] ③
105) [정답] ③
106) [정답] ②
107) [정답] ③
108) [정답] ②
[해설] 위 글은 전설로 구체적인 장소와 증거물은 제시되고 있어 신빙성은 높이고 있으나 신성성은 신화의 성격이다.
- 109) [정답] ④
110) [정답] ⑤
111) [정답] ②
112) [정답] ⑤
- 113) [정답] ⑤
- 114) [정답] ①, ③
- 115) [정답] ㉔분연체로 되어 있다. ㉔대체로 3음보가 나타난다. ㉔신흥사대부들의 득의에 찬 모습과 자부심이 주를 이룬다.
- 116) [정답] ⑤
- 117) [정답] ⑤
- 118) [정답] ⑤
- 119) [정답] ④
- 120) [정답] ①

- 121) [정답] 끈. 信(신)
- 122) [정답] ③
- 123) [정답] ②
- 124) [정답] ⑤
- 125) [정답] ②
- 126) [정답] 3음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연체로 되어 있다.
- 127) [정답] ②
- 128) [정답] 역설
- 129) [정답] ④
- 130) [정답] 과장, 역설, 반어
- 131) [정답] ⑤
[해설] 위 글의 화자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노래하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임이 떠난 후에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위 글과 <보기>의 화자가 동일하다면,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표현할 것이다.
- 132) [정답] 3음보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과 '즈믄 히를 외오곰 녀신들'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든 그치리잇가'의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해설] 위 작품은 '정석가'의 6연에 해당하는데,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에는 '구스리 / 바회에 / 디신들' 처럼 3음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과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과 '즈믄 히를 외오곰 녀신들'의 시구가 반복되어 표현한 것이다. 또 유사한 문장 구조가 되풀이되면서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 133) [정답] ⑤
- 134) [정답]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 135) [정답] ⑤
- 136) [정답] ④
- 137) [정답] ①
- 138) [정답] 끈. 信(신)
- 139) [정답] ③
- 140) [정답] ①
- 141) [정답] 빗, 벚꽃, 저
- 142) [정답] ①
- 143) [정답] ①

- 144) [정답] ③
- 145) [정답] ④
- 146) [정답] ②
- 147) [정답] ③
- 148) [정답] 벚른 빛, 벚룻, 저
- 149) [정답] ③
- 150) [정답] ⑤
- 151) [정답] ①
- 152) [정답] (나)는 희망적이며 순종하는 데 반해, (다)는 원망하고 거부한다.
- 153) [정답] ⑤
- 154) [정답] ②
- 155) [정답] ⑤
- 156) [정답] 빛, 벚룻, 저
- 157) [정답] 진상하러, 모습이시도다, 벚랑에, 앞에
- 158) [정답]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 나를 잊으셨는가
- 159) [정답] ③
- 160) [정답] ③
- 161) [정답] ②
- 162) [정답] 니를 혼디 너가저 원(願)을 비습노이다.
- 163) [정답] ④
- 164) [정답] ③
- 165) [정답] ①
- 166) [정답] ㉠은 높은 고불이고 ㉡은 자연 속에서 즐기는 친화적인 삶이다.
- 167) [정답] (1)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2) 마음을 돌려 내 말을 들으시어 사랑해 주소셔.
- 168) [정답] ②
- 169) [정답] 충신연주지사, 유배 문학의 효시이며 향가 해체기의 잔영이 보이는 향가계 고려가요이다. (
- 170) ④
- 171) ①

- 172) ④
- 173) ③
- 174) ④
- 175) [정답] ②
[] '도화(桃花)'는 시름없이 바람을 희롱하는데 나는 임이 없이 외로운 잠자리에 있으므로 '도화(桃花)'는 시적 화자와 서로 상반된 존재로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존재이다. 이렇게 시적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것이 ②의 꾀꼬리이다.
- 176) [정답] ㉠: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임, ㉡: 다른 여인, ㉢: 화자 자신
[해설] 4연에서 화자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자신을 찾아온 임을 '오리'에 빗대며 다른 여인을 찾아갈 것인지 왜 다시 돌아왔느냐며 비꼬듯 말하고 있다.
- 177) [정답] 두 작품 모두 임에 대한 사랑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가)의 1연은 얼어 죽는 극한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과 함께 하는 밤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고 노래하고 있고, <보기>는 천지간의 무서운 것들을 나열하고 임을 보지 못한 슬픔과 만나서 즐거움이 이런 무서운 것들과 비슷하다고 노래하고 있다.
- 178) [정답] ①
[해설] ㉠에는 임과의 이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기를 바라는 화자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 179) [정답] ④
[해설] 이 작품은 각 연의 내용과 표현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여러 작품을 합성하고 재편성하여 궁중 음악으로 만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인데 이에 대한 주된 근거로 우리말이 대부분인 1,3,4연과 달리 2,5연에서는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① 다른 고려가요 작품에 비슷한 구절이 나오기는 하지만 동일한 연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 180) [정답] ③
[해설]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어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연에서는 기원, 2~3연에서는 한탄, 4연은 의문, 5연은 욕망, 6연은 기원 등으로 달라진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화자의 어조는 시상의 전개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